

기본연구

2023-01

전북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개발연구

Establishing a Model for Cultivating Rural Creators
to Revitalize Rural Areas in Jeollabuk-do

조원지 황영모 배균기 나정호 이병훈 정호중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01

전북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개발연구

Establishing a Model for Cultivating Rural Creators to
Revitalize Rural Areas in Jeollabuk-do

조원지 황영모 나정호 배균기 이병훈 정호중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조원지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 5장
공동연구	황영모	연구위원	제4장 2절 일부
	나정호	연구위원	제4장 1절 일부
	배균기	연구위원	제4장 4절 일부
	이병훈	전문연구원	제2장 1절, 2절 일부
	정호중	전문연구원	제3장 1절, 2절 일부

자문위원	김주영	씨앗 C.Art 대표
	문영준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생생마을부장
	권순표	사각사각 대표

연구관리 코드 : 22GI1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산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감소, 사회자본 부족, 공동체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정주여건 개선,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 최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내적 발전력을 높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주목하고, 개인 또는 조직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농산어촌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사람을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로 정의하고자 한다.
-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개념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활력을 도모하는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 및 방법

-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 농산어촌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내용은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개념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의 역할,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정, 운영조직 및 주체 등으로 구성하였다.
- 연구방법은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개발을 위해 문헌조사, 정책동향,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역할은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로컬 탐색자, 숨겨진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가치를 찾아내는 로컬 발굴가,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를 만드는 로컬 혁신가이며, 새로운 지역활성화 주체를 발굴, 육성하는 로컬 교육자이다.
-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① 지역성을 갖춘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②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며, ③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며, ④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교육과 관리를 행정적으로 총괄하는 전담기관과 크리에이터의 현장 교육 및 활동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지역성, 전문성, 창의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기존 학교와 달리 현장이 교육의 장소가 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관계맺기는 크리에이터가 농산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이다. 이와 함께, 크리에이터가 자신만의 사고와 시각으로 지역자원에서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과정은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활동은 공동체와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육성과정과 활동에 공동체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와 주민이 자신들의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때 가능하다. 공동체와 주민에게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와 파트너로서, 새로운 지역활성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차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목적 및 방법 6

 가. 연구목적 6

 나.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7

 가.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7

 나. 선행연구 검토 9

제2장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 동향

1. 전북 농산어촌 현황 15

 가. 인구 현황 15

 나. 전라북도 농산어촌 생활실태 17

2.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 24

 가. 중앙정부 24

 나. 전라북도 35

3. 지역활성화 주체 육성정책 37

 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37

 나.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41

다. 부산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47
라. 전라북도 예비 청년마을만들기사업	49
4. 전북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과제	53

제3장

사례연구

1. 국외사례	59
가. 지역부흥협력대	59
나. 일본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학교	62
다. 시부야대학	66
라. 니시아와쿠라 로컬벤처	68
2. 국내사례	71
가. 제주 로컬브랜딩스쿨	71
나. 제주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	75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PD	77
라. 산림청 그루매니저	82
마. 넥스트로컬	85
바. 전북 생생마을대학	91
3. 시사점	94

제4장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1. 기본구상	99
가. 정의 및 역할	99

차 례

CONTENTS

나. 기본구상	101
2.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103
가. 예비 크리에이터의 지역성 강화	103
나. 예비 크리에이터의 전문성과 창의성 향상 기반 조성	105
다.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활동기반 확충	107
라.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확장	108
3. 운영조직 및 주체	110
가. 조직체계	110
나. 운영주체	111
4.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활동 영역	113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121
2. 기대효과와 정책제언	124

참 고 문 헌	126
---------------	-----

영문요약 (Summary)	128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 전라북도 시군별 중요과목 평균 접근시간	18
〈표 2-2〉 전라북도 시군별 어린이집·유치원 평균 접근시간	18
〈표 2-3〉 전라북도 시군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비율	18
〈표 2-4〉 전라북도 시군별 초·중학교 평균 접근시간	19
〈표 2-5〉 전라북도 시군별 도서관 평균 접근시간	19
〈표 2-6〉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체육시설 평균 접근시간	19
〈표 2-7〉 전라북도 시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20
〈표 2-8〉 전라북도 시군별 문화시설 평균 접근시간	20
〈표 2-9〉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폐기물 이행실태	20
〈표 2-10〉 전라북도 시군별 상수도 이행실태	21
〈표 2-11〉 전라북도 시군별 하수도 이행실태	21
〈표 2-12〉 전라북도 시군별 도시가스 이행실태	21
〈표 2-13〉 전라북도 시군별 대중교통 이행실태	21
〈표 2-14〉 전라북도 시군별 방범설비 이행실태	22
〈표 2-15〉 전라북도 시군별 경찰순찰 이행실태	22
〈표 2-16〉 전라북도 시군별 소방출동 이행실태	22
〈표 2-17〉 전라북도 시군별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22
〈표 2-18〉 전라북도 시군별 취업상담 관련 센터 유무	23
〈표 2-19〉 전라북도 시군별 전문인력 고용 유무	23
〈표 2-20〉 전라북도 시군별 전문프로그램 운영 여부	23
〈표 2-21〉 전라북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현황	35
〈표 2-22〉 2020년 선정과제	39
〈표 2-23〉 2021년 선정과제	39
〈표 2-24〉 2022년 선정과제	39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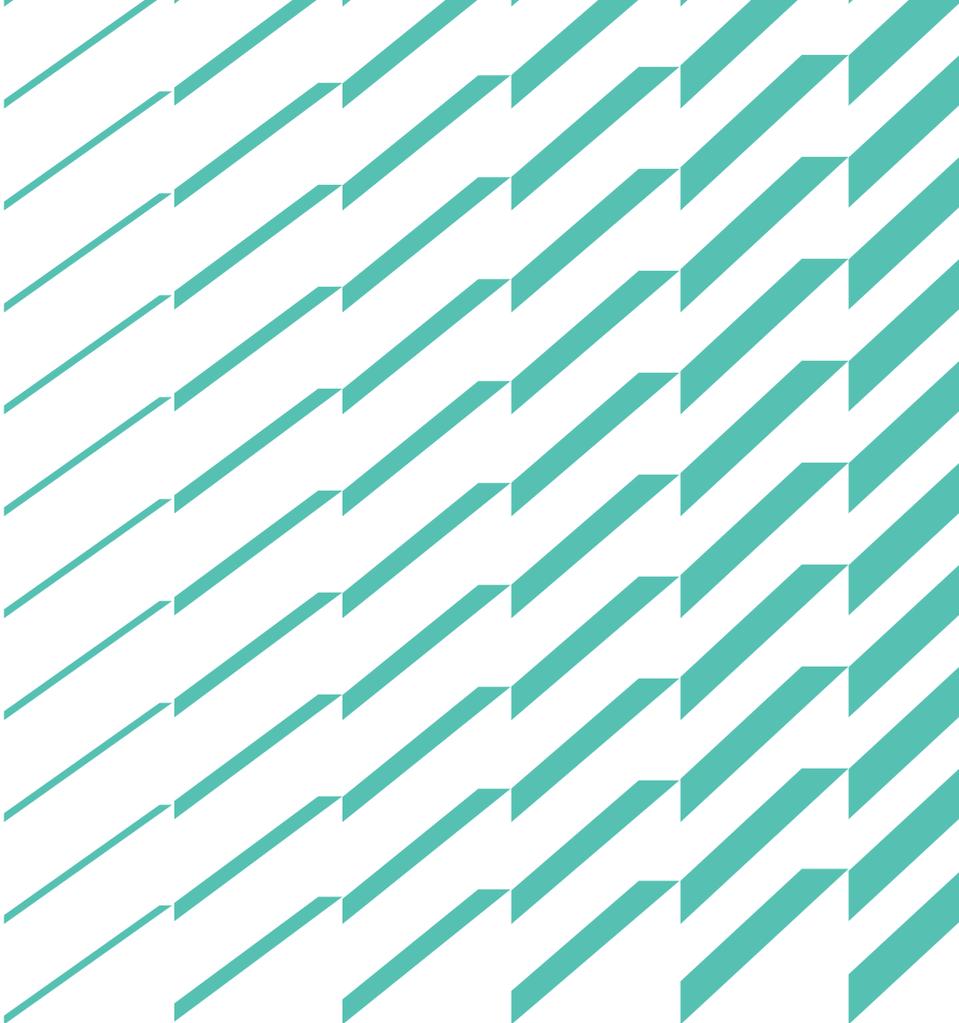
〈그림 2-1〉 전라북도 농산어촌 인구변화	15
〈그림 2-2〉 연령대별 전북 농산어촌 인구변화	16
〈그림 2-3〉 전라북도 귀농어·귀촌인 규모변화	17
〈그림 2-4〉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고령군 다산면 행복복합타운)	24
〈그림 2-5〉 중심거점 ⇄ 하위거점 ⇄ 배후거점 간 연계	25
〈그림 2-6〉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8
〈그림 2-7〉 임실군 공정관광 기획자 양성과정	29
〈그림 2-8〉 2021년 지원 주요 사례	30
〈그림 2-9〉 어촌 활성화 추진방향	32
〈그림 2-10〉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	33
〈그림 2-11〉 충남 서천군 다사항	34
〈그림 2-12〉 생생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지원	36
〈그림 2-13〉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38
〈그림 2-14〉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38
〈그림 2-15〉 순창 방랑싸롱	40
〈그림 2-16〉 공주 마을호텔	41
〈그림 2-17〉 2021년 신규 청년마을 사업 주요내용	43
〈그림 2-18〉 2022년 청년마을만들기 선정지역	44
〈그림 2-19〉 완주 다음타운	46
〈그림 2-20〉 강화 강화유니버스	47
〈그림 2-21〉 비건 아르프 키친	49
〈그림 2-22〉 남소송동 시간마을	52
〈그림 3-1〉 2017 에이메헌 이요시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61
〈그림 3-2〉 제품 기획 및 생산	62
〈그림 3-3〉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학교	63
〈그림 3-4〉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 교육방향	63

〈그림 3-5〉 고등전문학교 교육기관	64
〈그림 3-6〉 고등전문학교 교육과정	65
〈그림 3-7〉 시부야를 만드는 세미나	67
〈그림 3-8〉 광장 천장×지도×희로애락	67
〈그림 3-9〉 쿠라모토와 술(아키자케)를 하자!	68
〈그림 3-10〉 제주브랜딩스쿨 운영구조	72
〈그림 3-11〉 제주브랜딩스쿨 운영체계	73
〈그림 3-12〉 제주브랜딩스쿨 프로그램(6주)	74
〈그림 3-13〉 정금사 리브랜딩	75
〈그림 3-14〉 리노베이션 스쿨 운영과정	76
〈그림 3-15〉 리노베이션 스쿨 인 제주	76
〈그림 3-16〉 제주 우생당	77
〈그림 3-17〉 관광두레사업 추진체계	78
〈그림 3-18〉 관광두레PD 선정절차	79
〈그림 3-19〉 시흥관광두레	80
〈그림 3-20〉 시흥관광두레 주민사업체	81
〈그림 3-21〉 산림일자리발전소 추진체계	82
〈그림 3-22〉 그루 경영체 연차별 사업내용	83
〈그림 3-23〉 그루경영체 주요 지원내용	84
〈그림 3-24〉 그루매니저 육성 및 역할	84
〈그림 3-25〉 서울시 넥스트로컬	86
〈그림 3-26〉 제4기 넥스트로컬 프로그램 일정(22.6~23.10, 16개월)	87
〈그림 3-27〉 넥스트로컬 참가자 활동 과정	88
〈그림 3-28〉 넥스트로컬 운영조직 및 주요 역할	89
〈그림 3-29〉 시간을 쏘다	90
〈그림 3-30〉 여기공 협동조합	90
〈그림 3-31〉 2018년 생생마을대학(문화복지분야)	91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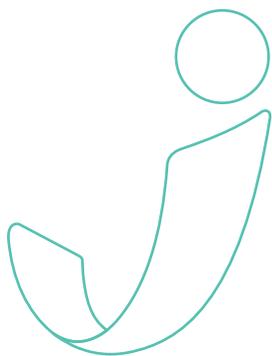
〈그림 3-32〉 2019년 생생마을대학	92
〈그림 4-1〉 완주군 고산면 청춘매거진	104
〈그림 4-2〉 디렉트룸 ‘좋아서 하는 영화캠프’	106
〈그림 4-3〉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마을119’	114
〈그림 4-4〉 군산 아이엠군산	115
〈그림 4-5〉 익산 사각사각	115
〈그림 4-6〉 고산 동거동락	116
〈그림 4-7〉 전주 구선손반	117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방법
3. 선행 연구 검토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농산어촌은 고령화, 인구 저밀도, 인구 유출, 생활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감소, 사회자본 부족, 농산어촌·농림어업 관리의 어려움, 공동체 활력 저하 등을 가져오고 있다.

농산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3월 농어업인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등 농어촌의 종합적인 개발 촉진을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이 제정되었다.

농어업인삶의질법은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경관보전, 문화복지시설 설치·운영, 교통편의개선, 농어촌산어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어촌의 사회적, 자연적 인구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마다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2년에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년~2026년)’은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을 비전으로 도시민의 체계적인 귀농귀촌 준비, 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취창업 및 지역 활동 참여,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농촌 공간 정비, 귀농귀촌 정보 및 서비스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년~2027년)’ 비전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이며, 제2차 종합계획은 어촌 관계인구 확대, 어촌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촌인구 확대, 진입장벽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귀어인구 증대, 거버넌스 고도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다.

‘제2차 산촌진흥 기본계획(2018년~2027년)’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산촌’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은 경제활동 및 청정 생활환경 기반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강점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단계별 교육, 정착 및 창업자금 지원,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산어촌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 유치로 중점으로 두고 있으나, 도시와 농산어촌의 생활여건 격차 증가와 인구유출은 농산어촌 활력 도모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사업들이 시행되며, 농산어촌 공간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과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중심에서 인적자원을 통해 농산어촌의 잠재력 발견으로 농산어촌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낙후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문화와 가치를 재창조하는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통해 동네와 지역을 재브랜드화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창업가¹⁾’ 또는 ‘지역자원,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의적 소상공인(모종린, 2021)’으로 설명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를 광의적으로 ‘지역에서 문화와 가치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²⁾

로컬크리에이터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물질주의와 대도시에서 벗어나 환경, 공동체, 정체성 등 로컬 지향적 접근으로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농산어촌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민과 외부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지역의 가치와 자원을 재발견하고 재해석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1)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세부관리기준(창업진흥원, 2021)’ 제2조1호.

2) 서울시 NPO지원센터, https://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203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공동체와 문화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활력 제고에 기여 가능한 인적자원에 주목되며, 지역활성화 주체인 크리에이터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라북도 농산어촌의 심각한 고령화³⁾와 인구감소⁴⁾는 지역을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감소를 의미한다. 전북 농산어촌의 활력 도모를 위해 생활SOC 구축, 도시민 유치를 통한 정주민구 증가 등을 중점으로 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숨겨진 유무형 자원을 재발견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은 도시의 쇠퇴하거나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 카페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농산어촌 주민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콘텐츠와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농산어촌 지역에는 부족하다.

이를 반영하여, 급속하게 고령화·과소화되고 있는 전북 농산어촌지역의 활력 도모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인적자원 양성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하여 전북 농산어촌에 적합한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고령인구는 2017년 기준 172,028명에서 2022년 187,329명으로, 그 비율은 30.3%에서 36.4%로 증가하였다.

4) 농산어촌 인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68,033명에서 515,299명으로 집계되며,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세를 보였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가. 연구목적

이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열악해지는 농산어촌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활성화 주체인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의 개념과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전북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 크리에이티브의 창의성, 지역성,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의 역할과 생태계의 개방성 및 확장성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 육성의 필요성 강조와 육성모델 개발을 위하여 열악한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어촌의 한계인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사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을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지역활성화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보고,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에서 인적자원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책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산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지역활성화 주체가 어떻게 유입되어 지역을 변화시키는지, 이들이 어떻게 발굴·육성되는 과정을 통해 지역성과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의 역할과 육성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가.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Creator)는 사전적으로 ‘만드는 사람, 창조자, 창작자, 개발자, 생산자, 작가 등과 같이 무엇이든 새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⁵⁾ 최근 2000년대 중반 지역에서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등장하면서 골목상권이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로컬(local)’⁶⁾과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용어가 등장하며, 이들을 ‘지역시장에서 지역자원,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정의하였다(모종린, 2021). 또한, 로컬크리에이터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로, 숙박, 식음료, 카페 등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도시재생 스타트업 등’까지 활용영역을 확장하며 지역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모종린, 2021).

지방분권에 따른 로컬거버넌스 시대에 맞춰 ‘4차산업혁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가치와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업가’를 로컬크리에이터로 개념화하였다(이창영 외, 202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생태’, ‘산업경제’, ‘역사전통’, ‘문화예술’, ‘생활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인·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 제조’, ‘지역 특화관광’, ‘거점브랜드’,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등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한다.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성’, ‘문화성’, ‘혁신성’의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기성세대문화에서 벗어나 ‘존재적 나다움’을 중시하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5) <https://namu.wiki/w/%ED%81%AC%EB%A6%AC%EC%97%90%EC%9D%B4%ED%84%B0>

4) 이창영, 김진수, 김대진, 박다인, 김영준, 정용주. (2020).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창업진흥원.

만드는 지역문화자체로 보았다(모종린, 2021).

숨겨진 지역의 가치와 자원을 발견하여 자신만의 관점으로 지역발전과 활성화에 도모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을 로컬크리에이터 이외에도 로컬메이커(local maker), 로컬기획자(local director), 로컬벤처(local venture), 로컬크리메이커(local cremaker)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지역 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며 경제적 이익을 넘어 경제, 사회문화 등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은 새로운 개념의 지역, 장소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문화매개자로 개념화할 수 있다(권지은, 2021). 공간은 ‘물리적이고 실재론적 개념을 담고 있는 장소를 넘어 인간활동, 의미적인 측면을 포함’한다(김희진, 2015). 이들은 지역에서 유무형의 자원을 통해 지역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소비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지역과 주민 또는 대중을 매개로 할 수 있다.

이들 용어는 ‘자신만의 관점,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지역의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로 수렴되고 있으며, ‘나다움’, ‘지역성’, ‘혁신성’, ‘경제·문화성’을 주요 키워드로 하고 있다.

농산어촌은 현재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유입,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체험 및 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경제가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출과 고령화는 지역의 인적자원 부족, 자원활용의 한계, 지역 가치의 퇴색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쇠퇴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인프라 개선, 주민 및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최근, 인구감소와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인해 활력을 잃은 지역의 가치와 자원을 재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들의 시도들이 있다. 현재 농산어촌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은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문제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연구에서는 이들 인재를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자 한다. 앞서 논의된 크리에이터 관련 개념과 역할들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를 ‘개인 또는 단체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농산어촌의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선행연구 검토

고령화, 과소화, 저성장 등으로 초래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정책과 함께, 도시민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지역을 배경으로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벤처, 로컬기획자 등으로 개념화하기 시작하였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브랜딩', '골목상권', '청년 일자리창출', '청년정책', '창업', '지역성', '지역재생' 등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가 있다(권지은, 2021; 마쓰나가 게이코, 2015; 모종린, 2021; 미야조에 켄시, 2014; 이원빈 외, 2019; 이창영 외, 2020; 정보라, 2022; 최유식, 박성룡, 2021; 황윤숙 외, 2021).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기반의 생활문화생산자로서(권지은, 2021; 박민아, 2021), 이들이 모여 형성된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자원과 아이디어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정보라, 2022). 또한,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주민·행정과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통해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었을 때, 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과 활동은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권지은, 2021; 황윤숙 외, 2021). 로컬크리에이터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여가, 생활 등 관련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활성화의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원빈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골목산업, 문화·창조산업이 모태가 된 로컬크리에이터의 대표적인 산업은 독립서점, 베이커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음식점, 패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총조사(2016)은 지역별로 골목산업⁷⁾과 문화·창조산

7) 골목산업은 '상점이 매장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소품, 잡화점, 공예공방, 서점, 음식점, 숙박 등'이 포함된다(모종린 외, 2019).

업⁸⁾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골목산업은 비수도권 소도시, 특별시·광역시 중의 지역, 문화·창조산업은 대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농산어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컬크리에이터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이원빈 외, 2019)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중 타지역에서 성장 후 이주한 로컬크리에이터가 처음부터 거주한 이들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타지역 출신의 로컬크리에이터는 창작, 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며, 호남과 제주권에 많았다. 해당 지역을 떠난 적이 없는 로컬크리에이터는 기타 제조업⁹⁾에 종사, 대구·경북지역에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로 '지역특성', '미래성장성', '저렴한 임대료' 등을 언급하였으며, 경영전략에 반영된 지역 특성은 '브랜드'와 '브랜드 스토리'이었다. 이들이 창업의 어려움으로 '창업자금조달', '경영노하우·기술 부족', '상권·입지 선정' 등을 언급하였다. 로컬크리에이터 중 창업교육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낮아, 창업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요건으로 '창의성'을 언급하였으며, '자신만의 가치와 콘텐츠'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이 희망하는 정부 지원은 '인프라 및 금융지원', '공간, 커뮤니티, 콘텐츠 개발 지원 및 훈련', '커뮤니티 및 상인 간 교류 활성화' 등으로 나타났다. 창업과정에서 로컬크리에이터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활동을 위한 기반(이창영 외, 2020)을 살펴본 결과, 현재 로컬크리에이터 또는 관련 조직이 유관기관·센터와의 협업, 투자시장 활성화, 전문서비스 지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위해 조직·단체·기업 간의 협업, 시장지원정책, 지역 창업가 존중문화,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역 특화산업 핵심기술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크리에이터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개개인 또는 조직을 위한 지원이 아닌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새로운 상품,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 체계 마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 기반 마련, 투자 및 공공영역 지원 등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8) 문화·창조산업은 '사회에 축적된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인적, 기술적 자원을 활용해 시장가치가 있는 창의적인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모종린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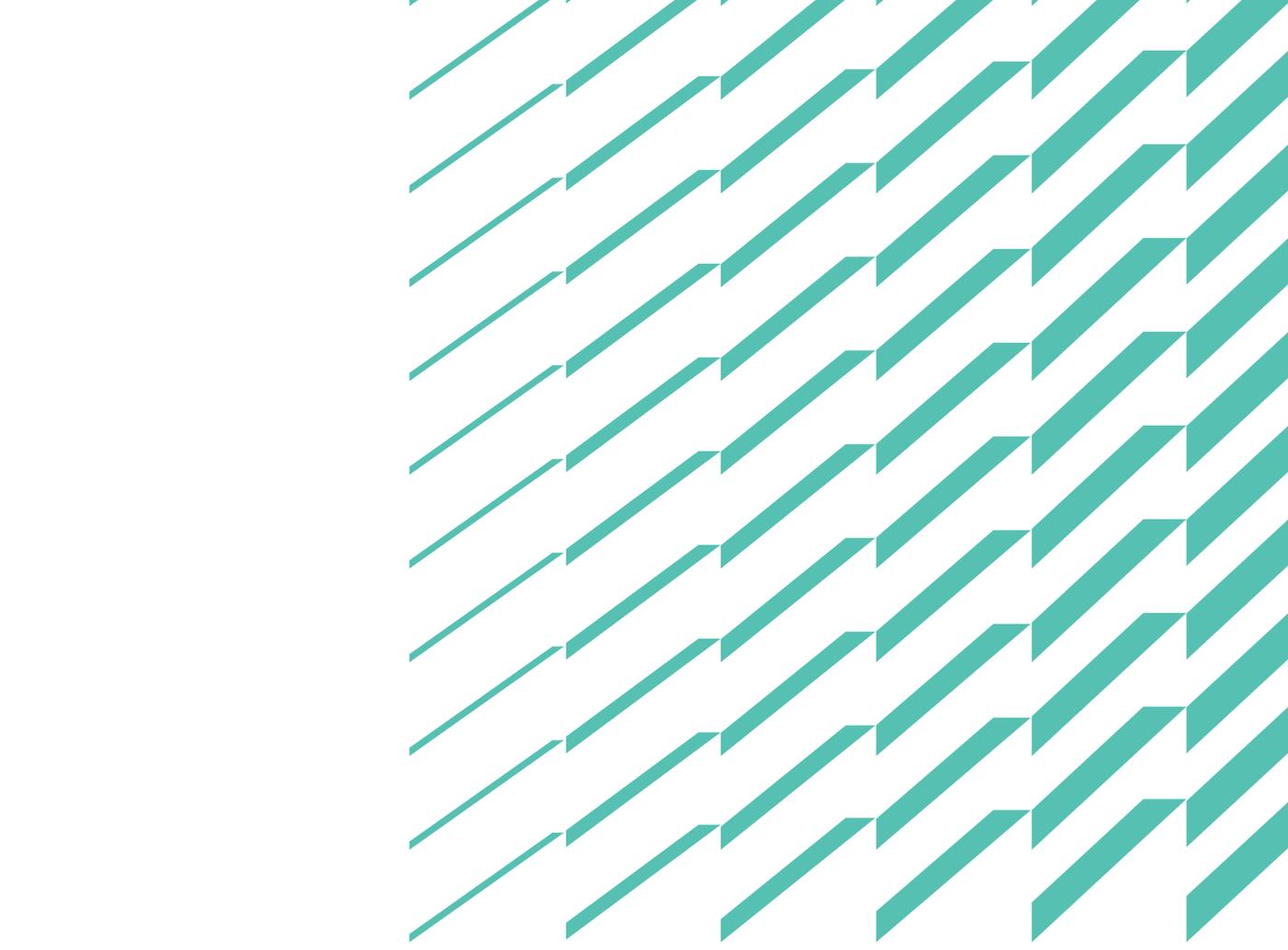
9) 업종을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출판업'으로 구분

강조하였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성장을 위해 이들의 경제적 지속성, 인프라 및 활동·거주공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관련 기관·조직과의 협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정보라, 2022).

로컬크리에이터의 등장과 활동이 주목받으면서 사회적,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로컬크리에이터 개념을 비즈니스모델, 즉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지역의 숨겨진 고유자원의 가치와 특색을 발견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쇠퇴한 중소도시의 재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문제 등을 인식하고 이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로컬크리에이터가 등장하며(권지은, 2021), 이들의 지역자원 활용과 아이디어 실현이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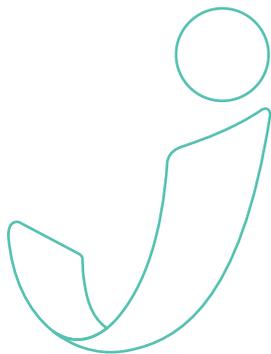
급격한 고령화와 과소화로 농산어촌 지역은 내재적 발전력이 낮아 다양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크리에이터와 같은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화, 환경 등 이슈를 창조적으로 접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제 2 장

농산어촌 활성화정책 동향

1. 전북 농산어촌 현황
2.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
3. 지역활성화 주체 육성정책
4. 전북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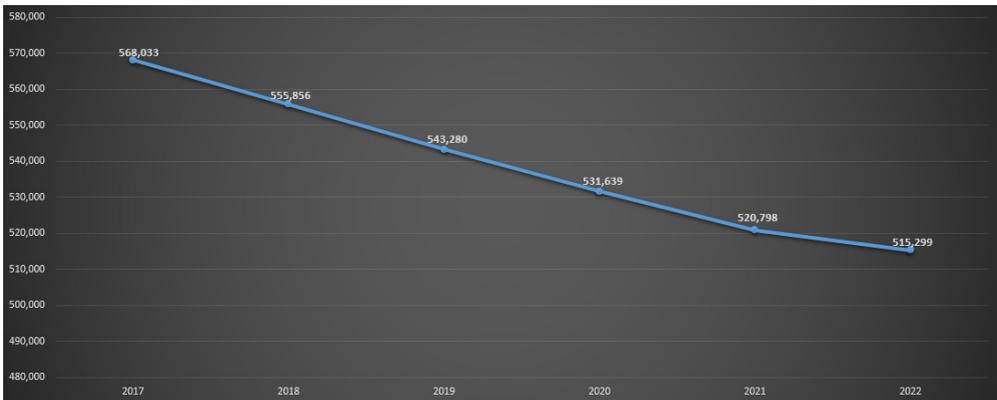
제 2 장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 동향

1. 전북 농산어촌 현황

가. 인구 현황

지난 6년간 전북 농산어촌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568,033명에서 2022년 515,299명으로 집계되었다. 농산어촌의 인구는 2017년 기준 전라북도 전체 인구 1,854,607명 중 30.6%, 2022년 1,769,607명 중 29.1%로 나타나 농산어촌 인구의 비중 또한 꾸준히 감소하였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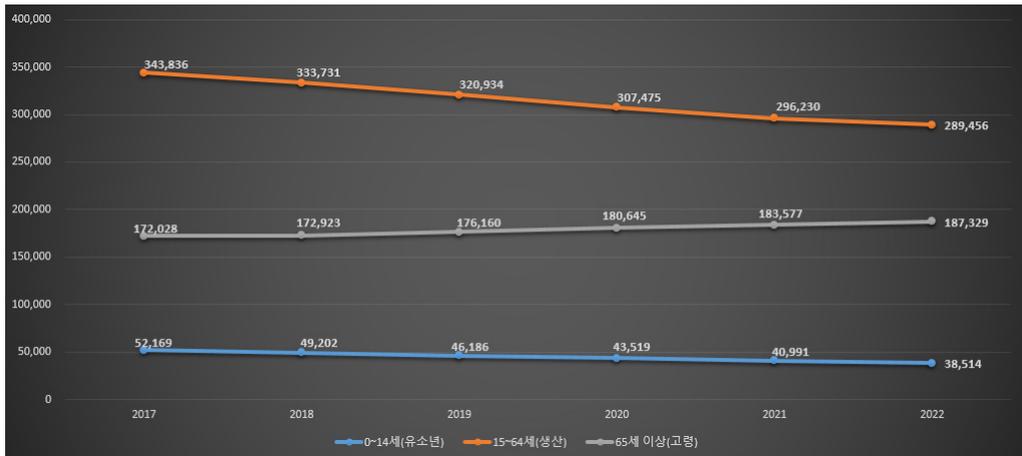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1] 전라북도 농산어촌 인구변화

연령대별 농산어촌 인구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유소년인구(0~4세)는 52,169명으로 전체 농산어촌 인구의 9.2%를 차지하였으며, 유소년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 기준 38,514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기준 전체 농산어촌 인구 중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7.5% 또한 감소하였다. 15세에서 64세를 포함하는 생산인구는 2017년 343,836명에서 2022년 기준 289,32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체 농산어촌 총인구 중 생산인구의 비중은 2017년 60.3%에서 2022년 56.2%로 감소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2017년 172,028명에서 2022년 187,329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농산어촌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7년 30.3%에서 2022년 3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2017년 이미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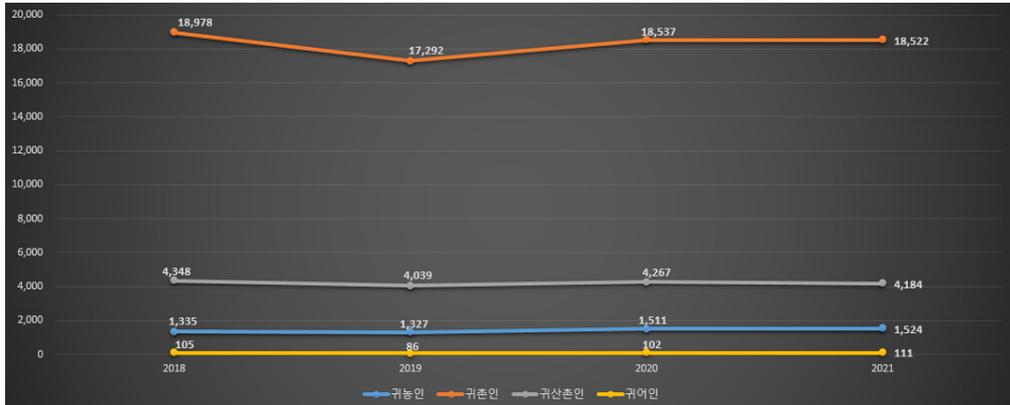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2] 연령대별 전북 농산어촌 인구변화

2018년부터 전라북도 농산어촌에 이주한 도시민의 규모는 [그림 2-3]과 같으며, 농촌으로 귀농인의 경우, 2018년 1,327명에서 2021년 1,524명으로 증가하였다. 귀촌인은 2018년 18,978명에서 2021년 18,52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귀산촌인은 2018년 4,348명에서 2021년 4,184명으로 감소하였다. 귀어인은 2018년 105명에서 2021년 111명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명)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귀농어·귀촌인통계.

[그림 2-3] 전라북도 귀농어·귀촌인 규모변화

나. 전라북도 농산어촌 생활실태

전라북도 농산어촌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일자리 부분의 서비스 공급과 인프라 구축 실태를 측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10)’를 활용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해 매년 ‘보건의료·복지(진료과목 의료, 응급 의료, 보육시설 등의 접근성)’, ‘교육·문화(초·중학교 접근성, 평생교육과 문화활동 경험, 문화여가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주거여건, 주거환경 등)’, ‘경제활동(취·창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측정한 농어촌의 생활실태를 살펴보았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농어촌 생활여건 실태는 ‘202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 보건의료·복지

농어촌 주민의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까지 농어촌 차량의 평균 이동속도

10) 김용욱, 나현수, 손경민. (2022).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림축산식품부.

(32.2km/h)로 30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요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중요과목의 평균 접근시간이 가장 짧았던 지역은 군산으로 13.5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주(42.4분), 장수(35.9분), 임실(35.3분)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전라북도 시군별 중요과목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3.5	13.9	19.7	20.3	16.5	21.4	25.1	42.4	35.9	35.3	27.4	22.4	22.7

국공립·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교육시설 접근성을 측정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여건을 살펴본 결과, 농어촌 차량 이동 평균속도(32.2km/h)로 영유아가 거주지에서 보육시설까지 6.1분이 소요되는 익산이 보육·교육시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시군 모두 보육·교육시설까지 소요시간이 20분 이내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였다.

[표 2-2] 전라북도 시군별 어린이집·유치원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8	6.1	9.6	8.7	8.5	7.8	13.0	10.1	11.9	18.6	6.9	10.7	6.9

노인복지 분야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비율’이 해당된다. 해당 노인인구를 6.5%¹¹⁾로 추정하고, 각 시군이 최소 6.5% 이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을 확인한 결과, 13개 시군 모두 2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였다.

[표 2-3] 전라북도 시군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0.8	21.9	22.7	28.2	27.2	26.2	29.1	31.2	22.7	32.1	27.8	28.1	24.3

11) 6.5%=16.6%(재가노인 중 IADL제한)X70%(기초연금수급비율)X55.9%(독거 및 부부동거가구비율)(출처: 2017년 노인실태조사 및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장래가구추계(2000~2045))

■ 교육·문화

13개 시군 모두 농어촌 차량의 평균속도(32km/h)로 거주지에서 초·중학교까지 도착 시간이 평균 10분 이내로 나타나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였다. 거주지로부터 학교까지 소요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5.7분인 부안이었으며, 다음으로 군산(6.2분), 익산(6.4분)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전라북도 시군별 초·중학교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2	6.4	9.9	7.3	7.7	8.5	9.3	8.5	7.4	7.0	7.1	5.8	5.7

차량(평균속도 32km/h)으로 도서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시간이 평균 10분 이상인 지역은 무주(13.9분)와 임실(10.6분)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을 제외한 11개 지역은 도서관 평균 접근시간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전라북도 시군별 도서관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2	6.4	9.9	7.3	7.7	8.5	9.3	13.9	7.6	10.6	9.7	8.8	9.2

전북 농어촌지역에서 차량 평균속도 32.2km/h로 30분 이내에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3개 시군 모두 거주지와 체육시설 간 접근성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다. 13개 시군 중, 익산이 8.7분으로 소요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다음은 고창(9.2분)이었다.

[표 2-6]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체육시설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4.2	8.7	13.2	16.1	16.8	17.7	13.3	17.9	11.4	20.6	11.2	9.2	20.4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 비율¹²⁾이 70% 이상이면, 평생교육 영역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12)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총 읍·면 수)X100

있다. 전북 13개 시군의 운영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정읍시(13.3%), 장수(28.6%), 순창(54.5%)를 제외한 10개 시군 모두 평생교육 영역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였다.

[표 2-7] 전라북도 시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단위: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0.9	100.0	13.3	100.0	100.0	92.3	100.0	100.0	28.6	100.0	54.5	100.0	100.0

13개 시군 모두 거주지에서 시군 내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까지 소요시간이 평균 40분 이내였다. 13개 시군 모두 문화 부문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다.

[표 2-8] 전라북도 시군별 문화시설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8.1	19.7	22.1	20.8	18.0	18.8	25.3	31.7	24.0	25.6	20.5	22.4	22.4

■ 정주기반

마을 내 생활폐기물에 대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영농과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행정리 비율(100%)을 통해 이행 정도를 판단한다. 영농폐기물의 경우, 남원, 무주, 장수, 순창, 부안을 제외한 8개 시군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3개 시군 모두 100.0% 미만이었다.

[표 2-9]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폐기물 이행실태

(단위: %)

구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영농	36.4	40.0	73.3	100.0	33.3	15.4	90.9	100.0	100.0	83.3	100.0	92.9	100.0
생활	0.6	1.2	2.2	9.6	2.7	0.2	96.2	22.0	7.9	5.3	39.5	8.0	3.5

상수도를 통해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 지역 전체 인구 중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인구 비율을 점검한 결과, 85% 이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한 지역은 군산(92.4%), 익산(97.5%), 정읍(96.3%), 김제(99.9%), 장수(88.0%), 임실(91.7%), 고창(99.4%), 부안(99.8%)이었다.

[표 2-10] 전라북도 시군별 상수도 이행실태

(단위: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2.4	97.5	96.3	83.2	99.9	77.2	76.2	74.7	88.0	91.7	74.8	99.4	99.8

농어촌지역 하수도의 경우, 군지역 전체 인구 중 공공하수처리 인구수 비율을 측정한 결과, 보급률 76%를 달성한 지역은 완주(83.5%), 진안(82.3%), 무주(79.8%), 장수(84.2%), 부안(83.1%)으로 나타났다.

[표 2-11] 전라북도 시군별 하수도 이행실태

(단위: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	-	-	-	83.5	82.3	79.8	84.2	67.8	60.5	74.7	83.1

읍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68% 이상인 지역은 완주(72.5%), 순창(76.1%), 고창(76.0%)으로, 이들 지역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였다.

[표 2-12] 전라북도 시군별 도시가스 이행실태

(단위: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3.5	12.2	0.0	0.0	0.0	72.5	35.6	58.7	0.0	61.2	76.1	76.0	62.1

마을 내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법정리 중 1일 3회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비율이 40.2%인 남원을 제외한 12개 시군 모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다.

[표 2-13] 전라북도 시군별 대중교통 이행실태

(단위: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0.0	100.0	100.0	4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마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과 진입로에 방범용 CCTV 설치 정도를 점검한 결과,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행정리 비율이 60%인 지역은 군산(17.8%)과 정읍(25.2%)를 제외한 11개 시군 모두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였다.

[표 2-14] 전라북도 시군별 방범설비 이행실태

(단위: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7.8	89.2	25.2	99.4	98.7	92.9	100.0	100.0	100.0	100.0	98.7	99.5	91.1

주민이 요청하는 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을 이행한 비율이 100.0%에 충족한 지역은 13개 시군 중 해당 지역이 없었다.

[표 2-15] 전라북도 시군별 경찰순찰 이행실태

(단위: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88.0	81.6	95.6	89.2	96.2	89.1	94.8	89.8	90.0	94.2	93.6	86.6	84.4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시군 행정리별 설정된 목표시간 내에 도착하는지를 점검하였다. 지역별 목표시간은 기준거리 2.5km에 7분 도착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 시 0.5km당 1분을 추가하였을 때, 목표치 70% 이상인 지역은 군산(61.9%)과 무주(66.7%)를 제외한 11개 시군이였다.

[표 2-16] 전라북도 시군별 소방출동 이행실태

(단위: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1.9	73.5	89.1	74.1	84.8	84.6	81.6	66.7	82.1	76.8	78.1	80.6	78.7

■ 경제활동

시군 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군산, 익산, 정읍, 완주를 제외한 9개 시군은 관련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표 2-17] 전라북도 시군별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단위: 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	1	1	0	0	1	0	0	0	0	0	0	0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 관련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진안, 임실, 부안을 제외한 10개 시군이였다.

[표 2-18] 전라북도 시군별 취업상담 관련 센터 유무

(단위: 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	1	1	1	1	1	0	1	1	0	1	1	0

지역 내 배치된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 상담인력 수를 살펴본 결과, 진안과 임실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1명 이상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표 2-19] 전라북도 시군별 전문인력 고용 여부

(단위: 명)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3	2	2	2	1	18	0	5	5	0	1	6	1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이 연간 운영되는 횟수를 시군별로 살펴본 결과, 임실군과 고창군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표 2-20] 전라북도 시군별 전문프로그램 운영 여부

(단위: 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연중	2	15	8	8	5	26	30	6	0	5	0	3

2.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

가. 중앙정부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¹³⁾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어디서나 불편없는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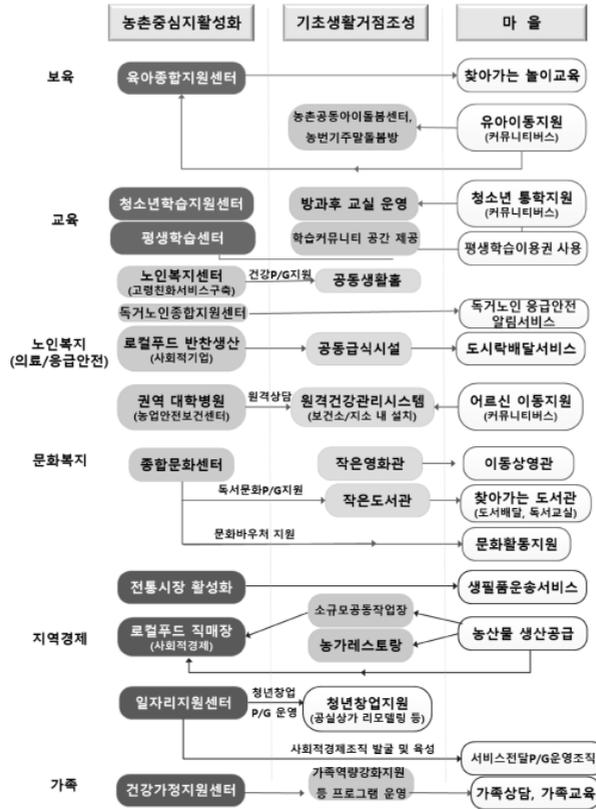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 생활SOC 시설에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개년 계획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확충하고, 365 생활권 기준을 분석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생활SOC 시설을 우선 보급하며, 중심지-배후마을 서비스 공급-전달모델 발굴 및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층별	주요 기능(시설)	
1층	연사무소, 보건지소(진료실), 도서관(어린이 자료실), 장난감 도서관	
2층	보건지소(치매쉼터), 도서관(디지털 자료실, 일반열람실 등)	
3~4층	문화복지센터(다목적 강당, 취미교실, 독서실 등)	

[그림 2-4]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고령군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인접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복합생활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의 서비스 전달을 강화하여 ‘중심거점 ⇄ 하위거점 ⇄ 배후마을’간 상호기능연계를 강화하여 농촌 365 생활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13)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



[그림 2-5] 중심거점 ↔ 하위거점 ↔ 배후거점 간 연계¹⁴⁾

생활SOC를 복합화하고, 지역사회에 생활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공급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이 서비스 기능을 공급·전달하는 주체로 참여하며,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¹⁵⁾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14) 농림축산식품부. (2022).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15) 농림축산식품부. (2022).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제공 및 전달 기능을 확대하며, 서비스 공급 거점은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반영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복합기능 생활SOC 시설을 조성한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거점으로 육성하며, 수요가 많은 생활SOC 시설을 우선 공급한다.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은 읍면 소재지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대하여 빈집, 유희시설을 소규모 서비스 공급 및 전달 거점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주도의 농촌지역개발 추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추진되는 어촌분야의 경우¹⁶⁾,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과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추진된다.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은 ‘행복한 삶터 조성(생활SOC형)’과 ‘다(多)가치 일터 조성(소득주도형)’으로 세분화하였다.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생활SOC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를 공급, 전달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多)가치 일터 조성사업’은 농어촌 고유자원의 특화산업화를 통해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특화지역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리더와 지역개발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1) 어촌 정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설명회, 워크숍 등 개최, 2) 지역리더, 지역개발전문가 등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¹⁷⁾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

16) 해양수산부. (2022).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가이드라인.

17) 해당사업은 2022년에 종료되어 2023년 신규 선정지역이 없다.

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 제31조,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제7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핵심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형 사회혁신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100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소재 법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추진주체의 사업계획 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였다.

■ 제주시¹⁸⁾

제주시는 2022년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 제주밭담과 함께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제주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과 활력 도모 사업'인 '스마트 청년농부+'를 운영하였다.

'스마트 청년농부+'는 농부 밀착형 마케팅 커뮤니티로 '교육'과 '네트워크'로 과정을 주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의 경우, '유통판매(팔아도 남는게 없다고 느껴질 때, 원가산정이 필요할 때!)', '라이브커머스(휴대폰으로 시작한 라이브커머스 1만 6천여명이 보기까지)', '온라인 마케팅(전 네이버 개발팀이 알려주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꿀팁)', '오프라인 마케팅(공간을 벗어난 오프라인 장터, 운영 이야기와 노하우)'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네트워킹의 경우, 언컨퍼런스 형식으로 제주시 청년들이 청년 농부 로컬 콘텐츠를 공유하여 협업 가능성을 제안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18) https://jejuyouth.com/bbs/board.php?bo_table=1_2_2_1&wr_id=208



[그림 2-6]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임실군19)

임실군은 지역 유무형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광객, 주민, 관광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을 기획 및 운영하는 공정관광 기획자를 양성하는 ‘공정관광 기획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과정을 공정관광 이론 및 실습교육, 선진지 답사, 공정관광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구성하였다. 입문과정의 커리큘럼은 공정여행에 대한 이해와 사례, 임실군에 공정관광의 필요성, 지역 공정여행 요소 탐색, 마을자원조사, 공정여행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구성되어 9주간 운영되었다.

19) 임실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정관광 기획자(입문) 교육생 모집’

https://www.imsil.go.kr/board/view.imsil?boardId=BBS_0000002&menuCd=DOM_000000103001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dataSid=91794

임실군 공정관광 기획자 교육과정 **이문**

모집기간 2022.9.1(목) ~ 9.20(화)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 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장소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80, 행복나눔센터 2층
모집대상	임실군 소재 협동조합, 마을기업, 조합법인, 법인 개인사업자 등 공정관광에 관심 있는 임실군 지역 주민
교육기간	2022. 9. 22 ~ 10. 20 (매주 목요일) / 총 5주, 9강(강의, 선진지 답사)
주요내용	공정관광 이론 및 실습교육, 선진지 답사 / 공정관광 프로그램 기획
수강예탁	- 교육과정 총 7회(차시)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임실군 공정관광 기획자 교육과정(심화) 과정 신청 가능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joyhaerin1@fairtravelkorea.com)
선정안내	서류 심사 후 선발(30명) *선정자 개별 안내(9월 15일)
문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윤혜린 코디네이터 (☎070-4351-1174)

주최 | 임실군농산어촌활성화지원사업 주관 | 공감만세

[그림 2-7] 임실군 공정관광 기획자 양성과정

○ 임실군 공정관광 기획자 양성과정(입문) 커리큘럼

차시	날짜	시간	세부내용
1	2022.09.29(목)	14:00 ~ 15:20	[강좌] 공정여행이란?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비전워크숍] 임실군에 공정여행이 필요한 이유?
2	2022.09.29(목)	15:30 ~ 17:00	[강좌] 공정여행 사례탐구 ①: 생태관광 (여행문화학교산책 - 국내 생태관광 기획 및 우수사례
3	2022.10.06(목)	14:00 ~ 15:20	[강좌] 지역관광을 통해 국제교류에 도전하는 사회적기업 여행사
4	2022.10.06(목)	15:30 ~ 17:00	[워크숍] 우리 동네에서 공정여행을 한다면 ① - 마케팅 전략을 통한 우리 동네 공정여행 요소 찾기
5	2022.10.13(목)	14:00 ~ 15:20	[강좌] 마을자원조사 방법론과 스토리텔링 - 공정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마을자원조사
6	2022.10.13(목)	15:30 ~ 17:00	[강좌] 공정여행 사례탐구 ②: 서울 성동구 (위사계절공정여행 - 지역자원 활용 공정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사례
7	2022.10.20(목)	10:00 ~ 16:00	[선진지 답사] 공정관광 사례탐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small>(일일예탁금 반환할 수 있음)</small>
8	2022.10.27(목)	14:00 ~ 15:20	[워크숍] 우리 동네에서 공정여행을 한다면 ② - 팀별 공정여행 프로그램 기획하기
9	2022.10.27(목)	15:30 ~ 17:00	[최종발표 및 졸업식] 임실군 공정관광 기획자 양성과정(입문) - 팀별 맞춤형 최종 간담회

3) 산림청 산촌 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²⁰⁾

산촌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사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개발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 사업발굴·육성 및 일자리·소득을 창출하는 산촌공동체로의 성장,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 온라인설명회 PPT, 2022년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산촌공동체는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에 위치해야 하며, 산촌주민 5인 이상이 조직한 공동체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조직형태를 구비해야 한다.

지원 유형은 과거 지원 이력이 없는 지역을 위한 ‘진입단계’,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지역의 ‘발전단계’와 ‘특화분야’로 구분된다. 진입단계의 지원내용은 마을 자원 연계사업 아이템 발굴 지원과 함께 사업화 컨설팅,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단계의 경우, 마을 자원 연계사업을 고도화하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연계로 사업을 지속하고,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게 지원을 한다. 특화분야지원은 청년, 도시민 등 외부인이 산촌에 유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2021년에 선정된 강원 정선 ‘가족올래 하추리마을회’는 송이버섯을 활용하여 소금과 오일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송이소금과 송이오일을 생산하고 제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장성의 경우, ‘포레스트(Forest) 맥주-포맥’을 테마로 장성 산림을 모티브로 한 수제 편맥맥주와 비자맥주, 산촌 수제맥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남 화순, 사포, 하조, 당치마을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숲으로 그린 스테이(숲PRO GREEN STAY)’ 공동 숙박 브랜드를 개발하여 숙소를 어메니티 업그레이드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숲으로 그린 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청년마을(주)과 월악마을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은 월악산권역 귀산촌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인 가을 수학 체험프로그램, 청년 산촌 정착 프로그램, 월악 가을축제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p>가족올래 하추리마을회 (강원 정선 / 단독형)</p> <p>송이버섯 특화상품 (송이소금, 송이오일)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이소금·송이오일 개발 및 시제품 생산 - 송이소금·송이오일 제작 체험 프로그램 시범운영 	<p>장성남창계곡 (전남 장성 / 단독형)</p> <p>산촌맥주: 포레스트 맥주 'Forest맥주 - 포맥'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의 산림을 모티브로 한 수제 편맥맥주·비자맥주 개발 - 산촌 수제맥주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p>전남협의체 (화순, 사포, 하조, 당치마을 / 협의체형)</p> <p>숲으로 그린 스테이 (숲PRO GREEN STAY) 공동 숙박 브랜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및 어메니티 업그레이드 공간 디자인 컨설팅 - '숲으로 그린 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개설 	<p>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청년마을(주), 월악마을 / 협의체형)</p> <p>월악산권역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 수학체험 프로그램, 청년 산촌 정착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월악 가을축제 프로그램 기획·운영 
--	---	---	--

[그림 2-8] 2021년 지원 주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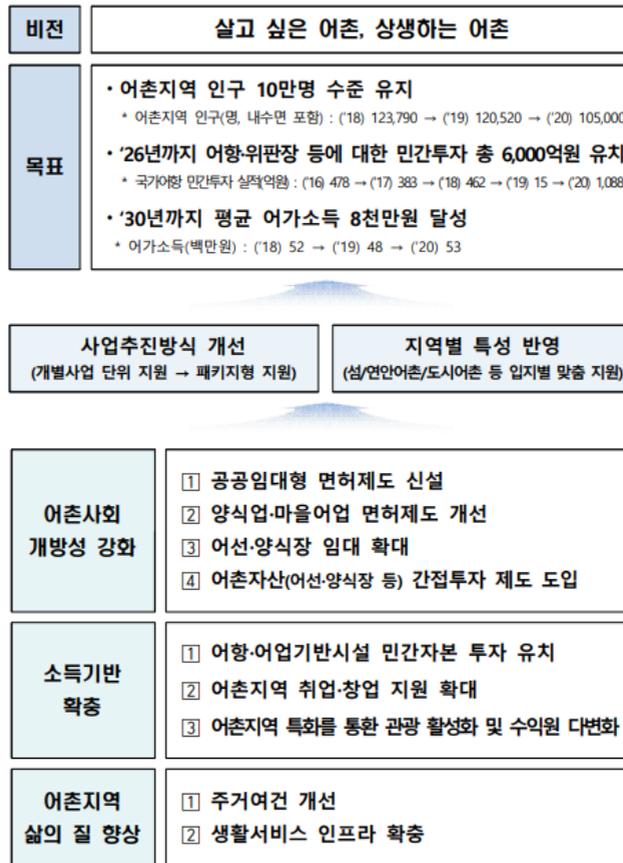
4) 해양수산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2021년 10월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산업경제 폐쇄성, 제한적인 일자리, 열악한 주거여건, 폐쇄적인 공동체 문화 등을 어촌지역 소멸의 요인으로 규정하며, 일자리 창출, 공동체 재건을 통해 어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촌 활성화 방안의 비전을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으로,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형 면허 제도 신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 어선·양식장 임대 확대, 어촌자산(어선·양식장 등) 간접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형 면허제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식·마을어업 면허를 발급하여 신규 전입자 등이 면허를 임대하는 제도로, 귀어인 등 신규 진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다. 어촌계원·조합원 외에 귀어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어업법인도 양식·마을어업권 행사에 참여가능하고, 귀어인 등에게 신규면허의 일정 비율에서 발급해주고, 어촌지역 지원사업 평가 시 어촌계의 신규 진입자에 대한 개방성을 평가하는 등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임차한 유희어선 등을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주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일부를 예비창업자 및 연구기관 등을 위한 실습형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척지 내 수산단지를 친환경·스마트 양식단지로 시범조성하는 어선·양식장 임대로 확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촌지역 자산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펀드 방식의 간접투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어촌자산 투자 펀드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고 어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투자자에게 '준귀어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어촌자산 간접투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어촌지역의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유희부지 등을 활용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위판장을 대상으로 자동화·저온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항·어업기반시설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창업자 외 취업자 및 동반가구원 등을 취업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전입자를 위한 정착 교육 강화 및 업종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귀어학교 확대, 귀어닥터 확충, 교육비 전액 지원, 귀어귀촌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후계어업인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마을별 특화계획 수립과 특화마을 시범조성 지원 검토, 융복합을 통한 수익모델 발굴 및 귀어귀촌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수익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입 전입자를 대상으로 어업·양식업 등 기술 습득, 임시 거주시설 제공, 단·장기 임대용 시설 활용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장기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어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거점지역 생활서비스 센터 구축, 연안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개선 등을 위한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하고자 한다.



[그림 2-9] 어촌 활성화 추진방향

5)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²¹⁾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²²⁾. 해당 사업은 1)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해상교통 접근성 강화,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대합실·매포소·화장실 등 편의시설 마련 등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2)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 관광을 브랜드화하며, 해양레저 대중화 및 국민관광 이용권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등 특화지원을 포함한다. 3) 어촌지역의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어촌뉴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와 어촌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관광모델·수산 특화 모델 등 개발, 4) 법무부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국토부 주거플랫폼 등과 같은 부처 연계사업을 진행하였다.

한 예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은 귀어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중점을 두고 귀어인 정착을 위해 ‘어촌형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통해 귀어인에게 숙박, 생활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사무공간과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득사업을 진행하였다.²³⁾



[그림 2-10]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

충남 서천군 다사항의 경우,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어촌을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

21) <https://blog.naver.com/koreamof/222731313630>

22) 해당 사업은 2022년에 종료된 사업으로, 2023년에 신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23) 해양수산부(2021). 어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완료(2021.12.6., 보도자료)

SOC 확충 및 어촌사업으로 귀어인을 유치하고, 신규 어업인 정착과 마을정비를 위해 귀어인과 주민의 공동공간인 ‘어촌마을만들기사업’과 ‘뚜드랭이 어촌문화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비옥한 바다의 자연을 뚜드린다는 뜻을 가진 ‘뚜드랭이’ 마을 당정리는 어촌 마을 장점을 살려 뚜드랭이 언덕 포토존, 어촌문화관, 어업인 복지시설 등을 설립하여, 뚜드랭이 공동체의 교육 및 문화공유사업을 펼쳤다.²⁴⁾



[그림 2-11] 충남 서천군 다사항

전라북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개소(어촌·어항)가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 어촌 기반시설을 개선하였다(나정호 외, 2022).

24) 해양수산부(2021). 어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완료(2021.12.6., 보도자료)

[표 2-21] 전라북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현황

연도	선정지역		어촌뉴딜 300 사업내용
2019	무녀2구항	군산	방파제·어항 보강, 어구보관 창고
	명도항	군산	안전시설 설치, 명품 비닷길 조성
	동호항	고창	포구 정비, 수산물동굴장터 설치
	대리항	부안	접안시설 보강, 해안도로경관정비
2020	식도항	부안	안전시설, 어민회관, 풍류로드
	정자도항	군산	물양장, 어항시설, 선착장
	선유1구항	군산	물양장, 광장, 어항시설개선
	비인도항	군산	방파제, 물양장, 전망대
	죽도항	고창	선착장, 인도교, 전망대, 공원
	광승항	고창	선착장, 포구정비, 체험장
	공소항	부안	물양장, 방파제, 젓갈거리
	벌금항	부안	물양장, 방파제, 전망데크
	모항	부안	물양장, 방파제, 마실길, 식당
2021	깊은금항	부안	물양장, 방파제, 안전시설, 화관
	두리도	군산	방파제 연장, 작업장, 경관정비 등
	서래포구	군산	호안정비, 물양장조성, 어촌박물관 등
	고리포	고창	부잔교, 방파제, 어구창고, 해안길 등
	왕포·작당	부안	방파제 연장, 어구보관창고, 체험장 등
2022	치도	부안	방파제, 물양장, 치도 공원조성 등
	아미도항	군산	선양장, 다목적 인양기, 방파제, 어민복지회관 등
	상포포구	고창	탄소중립 식물원, 족욕체험장, 갯벌소공원, 야영장, 자전거쉼터 등
송포항	부안	방파제 연장·중고, 안전부잔교 설치, 해녀해남복합센터 조성 등	
합계	22개		

자료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2021)나정호 외, 2022, 재인용)

나. 전라북도

■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2016년부터 시행된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2022년 제3차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과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활력과 주민의 삶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생생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3단계(기초, 활성화, 자립화)로 구분하여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단계에서는 ‘보조사업 추진 경험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원조사, 주민교육, 공동체 조직화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한다. 활성화단계

에 있는 마을 중 공동체 형성이 원활하지 않은 마을 경우에도 전문가 전담매니저의 기초 단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 추진 경험이 없는 마을은 마을공동체 경관개선, 숲가꾸기, 동아리활성화, 소규모 축제 개최 등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도농교류가 활발한 생생마을은 산촌마당 캠프 운영을, 활성화 단계를 마친 생생마을 중 마을 재생을 추진하고 싶은 마을은 공동체 활동을 위해 전담매니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활성화단계는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 도농상생, 힐링사업 등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농촌 기초생활 여건 개선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생마을의 힐링자원을 활용하여 생생마을을 도시민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치유힐링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마을단위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주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에너지를 절감시설 설치 및 운영한다. 관광인프라 조성 및 대단위 도시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마을을 홍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한다. 농촌문제 해결을 도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평생교육, 자매결연, 마을기술사업단,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을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마을 역량 강화와 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자립화단계에서는 지속성장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자립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마을의 문화자원을 도시민에게 맞게 콘텐츠 개발, 상품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을 지원한다.



[그림 2-12] 생생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지원

3. 지역활성화 주체 육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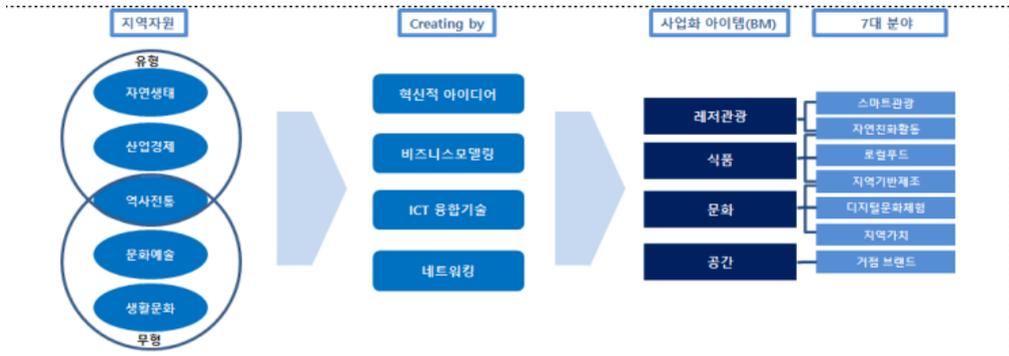
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지역가치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가치 창업의 분야를 ‘거점상표(브랜드)’, ‘지역가치’,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자연친화활동’, ‘지역특화관광’, ‘디지털문화체험’으로 구분하였다.

2020년에는 로컬크리에이터 유형을 ‘지역가치(지역문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 창출)’, ‘로컬푸드(지역에서 재배가능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또는 지역에 특화된 제조공법과 IT·생명공학 기술을 융합)’, ‘지역기반제조(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스마트관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또는 지역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거점브랜드(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또는 지역성과 보편성의 조화로 전국적 확대)’, ‘디지털문화체험(지역별로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자연친화활동(지역별로 특색있는 자연환경에서 진행되는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7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비창업트랙과 기창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예비)지역가치 창업자에게 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하고 사업화하는데 단계별로 자금,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창업트랙은 창업경험이 없거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최대 1천만원), 네트워킹, 교육을 지원하고, 기창업트랙은 창업 기간이 7년 이내인 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그림 2-13]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구분	내용
지역가치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로컬푸드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중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관광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 문화체험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

[그림 2-14]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2020년 사업으로 지역콘텐츠는 30개, 로컬푸드 28개, 지역기반제조 24개, 디지털문화 체험 21개, 거점브랜드 19개, 스마트관광 13개, 자연친화활동 5개로, 총 140개 로컬크리에이터 과제가 선정되었다. 전라북도도는 8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전라북도 로컬크리에이터 과제는 ‘순창지역의 유희공간, 공연, 사람을 연계한 농촌 활성화 플랫폼’인 ‘방랑싸롱’, ‘군산 지역의 재생을 위한 메이커스 타운’을 구축·운

영하는 '주식회사 지방', '순창지역의 로컬푸드 상품 홍보 및 유통 플랫폼'인 '주식회사 구선손반', '정읍 초식성 반려동물 펫푸드 사료'를 제작하는 '더올HAY', '전주 영화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디렉터룸', '군산 내 폐건물을 활용한 로컬 미디어 크리에이터 카페'인 '아이엠군산', '김제 트리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특화 상품 및 관광거점'을 구축하는 '미즈노씨네 트리하우스', '군산문화예술을 활용한 로컬 문화예술 창작소' '냥냥'이 해당 된다.

[표 2-22] 2020년 선정과제

지역콘텐츠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디지털문화체험	거점브랜드	스마트관광	자연친화활동
30	28	24	21	19	13	5

출처 : 지역경제 이끌어 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과제 선정(2020.6.5., 보도자료)

2021년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는 250명이 선정되었으며, 로컬푸드는 63명, 지역기반 제조 51명, 거점브랜드 30명, 지역특화관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또는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28명, 자연친화활동 17명, 디지털문화체험 13명이었다. 250팀 중 전라북도는 15개 팀이 선정되었다.

[표 2-23] 2021년 선정과제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가치	거점브랜드	지역특화관광	자연친화활동	디지털문화체험
63	51	48	30	28	17	13

출처 :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 선정(2021.6.7., 보도자료)

2022년 중기부는 전체 170개 로컬크리에이터팀을 선정하였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로컬푸드는 54개 팀, 거점브랜드 34개 팀, 지역가치 34개 팀, 지역기반제조 22개 팀, 지역특화관광 20개 팀, 디지털문화체험 5개 팀, 자연친화활동 1개 팀이 선정되었다. 전라북도는 이 중 8개 팀이 선정되었다.

[표 2-24] 2022년 선정과제

로컬푸드	거점브랜드	지역가치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관광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54	34	34	22	20	5	1

출처 : 지역을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 선정(2022.4.22., 보도자료)

■ 순창 방랑싸롱

2020년에 선정된 전라북도 로컬크리에이터는 순창 ‘방랑싸롱’, 군산 ‘주식회사 지방’, 순창 ‘주식회사 구선손반’, 정읍 ‘더올HAY’, 전주 ‘디렉터룸’, 군산 ‘아이엠군산’, 김제 ‘미즈노씨네 트리하우스’, 군산 ‘낭낭’ 등이 있다.

방랑싸롱은 여행 전문가 시각에서 순창지역의 공간, 공연, 사람 등 순창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시를 재브랜드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방랑싸롱은 지역의 청년 뮤지션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무대를 제공하며, 방랑싸롱은 문화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서 문화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방랑싸롱은 농촌 할머니에게 랩을 가르치며,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삶을 랩으로 표현하면서 청년과 할머니 간 상호이해와 교류를 할 수 있는 ‘할미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지역공동체 활력에 기여하였다.²⁵⁾



[그림 2-15] 순창 방랑싸롱

■ 공주 마을호텔

충청남도의 경우, 공주 ‘마을호텔’, 온양 ‘포메탈’, 부여 ‘겨자꽃마을’, 논산 ‘도트비’, 논산 ‘비욘드커브’, 논산 ‘캐스트유’ 등 로컬크리에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공주시 구도심 봉황동에 위치한 ‘마을호텔’은 1960년대에 지어진 한옥을 리모델링한

25) <http://news.tf.co.kr/read/national/1824260.htm>

것으로, 관광객과 마을 자영업자가 상생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동네에 있는 민박, 식당, 카페, 사진관, 갤러리 등을 연계해 마을이 마치 호텔처럼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²⁶⁾ 골목 자원과 공주 문화를 활용한 봉황재 인근을 돌아보는 골목투어, 공주 원도심 문화를 주제로 한 문화관광투어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16] 공주 마을호텔

나.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2018년부터 시작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인구감소지역에서 삶의 기회를 찾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폐청사, 폐교 등 국·공유재산, 민간소유 빈집 등을 활용하여 청년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주목받는 비즈니스 분야를 발굴하여 지역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26)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81310.html

2018년에 행정안전부 ‘시민 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에 전라남도 목포 ‘괘찮아마을’이 선정되었으며, 괘찮아마을은 6주간 ‘쉽, 상상, 함께’를 주제로 ‘괘찮아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충청남도 서천군 ‘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이 선정되었다. 삶기술학교는 자기주도적 문제를 정의·발굴하고 팀 기업가 정신 함양 가능한 창업가 교육 커리큘럼인 삶기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삶기술학교는 서천군 한산면의 자원을 발견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팀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경상북도 문경시 ‘달빛탐사대’가 2020년 청년마을로 선정되면서 문경과 로컬창업(농업, 로컬푸드, 문화예술 등)에 관심있는 청년, 삶의 휴식이 필요한 청년, 노마드라이프 경험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농사지으며 두달살이하는 ‘farm project’, 요리하며 두 달살이하는 ‘food project’, 문화예술 두달살이하는 ‘culture project’, 시골에서 두달살이하는 ‘life project’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총 12개소로, 부산 동구 ‘주식회사 공공플랜’, 인천 강화군 ‘협동조합 청풍’, 울산 울주군 ‘발표문화 주식회사’, 강원 강릉시 ‘주식회사 더웨이브컴퍼니’, 충남 괴산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뭐하농’, 충남 공주시 ‘주식회사 퍼즐랩’, 충남 청양군 ‘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 전북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전남 신안군 ‘스픽스’, 경북 상주시 ‘이인삼각 협동조합’, 경북 영덕군 ‘(주)메이드인피플’, 경남 거제시 ‘주식회사 공유를위한창조’가 해당된다.

선정지역		사업 주요내용
부산	동구(조량동)소멸 (<u>공공유휴지</u>)	【소통으로 길을 연결하는 이바구 마을】 • 이바구마을(도시민박촌)을 거점으로 지역자원(빈집·공유공간 등)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업·창직 지원
인천	강화군(강화읍)소멸 (<u>협동조합 청풍</u>)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마을의 주인 Local Master】 • 청년과 지역주민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협력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는 공동체 방식의 삶 모색
울산	울주군(상북면) (<u>발효문화주</u>)	【마음과 몸, 꿈을 발효하는 365酸解마을】 • 지역 내 발효식품(양류·김치·술·요거트 등) 장인에게 제조법을 배워 제품·개발 및 발효 식당·마켓·카페 창업 지원
강원	강릉시(중앙동)소멸 (<u>컨터웨이브컴퍼니</u>)	【“강릉(떠나지 말고, 이주해 와서) 살자”】 • 중앙동 일대의 청년 창업가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청년들에게 기술멘토링을 실시하는 창업공동체 형성
충북	괴산군(강물면)소멸 (<u>워킹하늘</u>)	【워킹하는 농부들, 워킹하늘】 • 농업이론 교육, 다양한 농업 실습, 청년농업인 멘토링 등 농업경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청년귀농인 정착 지원
충남	청양군(청양읍)소멸 (<u>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u>)	【청양의 맛있는 동네, ‘청·맛·동’】 • 청년들의 독특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청양의 지역 자원(고추·구기자·열린 등)을 활용한 지역상품 제작·판매
	공주시(중학동)소멸 (<u>퍼즐클럽</u>)	【청년이 디자인하고 제안하는 High-end Local】 • 백제 및 근대문화 유산을 간직한 공주 원도심에 정착한 청년팀의 사례를 전수하여 창업 활동 지원
전북	완주군(고산면)소멸 (<u>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u>)	【청년을 환대하는 지역, 지역에서 완주하는 청년】 • 사람과 일, 정보가 오가는 비벌언덕중개사무소를 통해 상생창업, 공간모색, 지역-청년 교류 등 정착지원
전남	신안군(안좌면)소멸 (<u>스픽스</u>)	【노두(섬과 섬을 잇는) 마을】 • 아름다운 섬과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 정착 지원
경북	영덕군(영해면)소멸 (<u>책메이든피플</u>)	【천천히 걸어가고 싶은 청년들의 터전, 두벅이 마을】 • 영덕 블루로드(트레킹 코스)와 영해면 근대문화역사거리를 중심으로 걸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트레킹 마을 조성
	상주시(남원동)소멸 (<u>무양주덕 외 8개업체</u>)	【우리처럼 살 수 있어요, 이인삼각 로컬러닝메이트】 • 남원동에 정착한 청년창업자들이 지역 경험과 경제적 자립 경험을 밀착 코칭하여 안정적 정착 지원
경남	거제시(장승포동) (<u>공공유휴지위탁장소</u>)	【청년들의 아웃도어 라이프가 있는 아웃도어 아일랜드】 • 목공을 좋아하는 마케터, 캠핑을 즐기는 기획자, 서핑을 사랑하는 공간운영자 등이 모여 아웃도어 비즈니스 창출

[그림 2-17] 2021년 신규 청년마을 사업 주요내용²⁷⁾

2022년에 선정된 지역은 속초시 동명동, 태백시 장성동, 영월군 상동읍, 아산시 도고면, 태안군 이월면, 군산시 신흥동, 강진군 강진읍, 경주시 감포읍, 의성군 의성읍, 예천군 효자면, 하동군 하동읍, 함양군 함양읍이다.

27)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청년마을 12곳에 조성된다’ (2021.4.19., 보도자료)

시·도	시·군·구	사업지	대표 신청기관명
강원	속초시	동명동	㈜트리벨
	태백시	장성동	㈜넬티
	영월군	상동읍	농업회사법인(주)이었던
충남	아산시	도고면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태안군	이원면	㈜오락발전소
전북	군산시	신흥동	㈜지방
전남	강진군	강진읍	아트 랩소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마카모디
	의성군	의성읍	사회적협동조합 menTory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호두
경남	하동군	하동읍	㈜다르파도
	함양군	함양읍	㈜숲속언니들

[그림 2-18] 2022년 청년마을만들기 선정지역

함양군 ‘고마워! 할매’는 지역 할머니와 이주 청년들을 연결해 할머니들의 음식 조리법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청년마을이다. 예천군 ‘생텨마을’은 산속 버려진 땅에 힐링 수련장을 만들고, 구들장을 이용한 집을 지어 방문자들이 농사를 지으며 힐링과 치유의 긍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힐링타운을 청년들이 조성한다.

군산시의 경우, 양조장이 있던 말랭이 마을에 잇혀진 수제 청주 제조법을 되살려 청년 감성에 맞는 청주문화를 만드는 ‘술 익는 마을’을, 경주시 감포읍은 가자미를 매개로 한 식당, 영화제작, 마을여행 등으로 구성 마을을 청년들이 조성한다.

지역주민들과 청년이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의 경우, 도고온천을 웨케이션과 듀얼라이프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있다.

■ 전북 완주 '다음타운'²⁸⁾

다음타운은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더문스페이스, 온누리살이사회적협동조합, 청년마을목수협동조합,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가 협력하여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체이다.

완주청년마을 다음타운은 20~40대 귀촌 청년이 중심이 되어 로컬청년정책연구, 청년귀농귀촌지원, 창업창직지원, 청소년진로교육, 커뮤니티공간운영, 지역기반문화기획 등을 하고 있으며, 창업창직공간,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춘 공유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타운은 완주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박 3일에서 4주 동안 고산면에 살아보는 '완주탐험'과 지역을 탐색하는 '고래의 꿈'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산면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청년들은 자기다움을 찾고, 지역과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살이 및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창업 콘텐츠 개발과 창업 준비,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음타운은 '로컬베이스캠프'와 '비빌언덕'을 운영하고 있다. 로컬베이스캠프는 '탐색, 교류, 여행 등을 목적으로 완주군을 찾아오는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인 다음스테이, '지역주민, 귀농귀촌인, 청년이 함께 운영하는 커뮤니티 식당'인 모여라땡땡땡, '다음타운 사무국 겸 코워킹스페이스'인 커넥터스랩(고래당1호), '창작, 전시, 모임 등을 위한 공유공간'인 메이커스랩(고래당2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빌언덕은 비빌언덕중개사무소와 비빌언덕공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빌언덕중개사무소는 청년들 간 정보공유, 문화기획, 시장활성화 등을 위해 이들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빌언덕공유실험실은 창업·창직을 실험하는 팝업스토어 겸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8) <https://happychange.kr/news/interview/9581/>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2022). 어쩌다 완주, 어쩌면 로컬(2021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그림 2-19] 완주 다음타운

■ 강화 강화유니버스²⁹⁾

2013년 강화유니버스는 강화도 출신 또는 강화도를 좋아해 이주한 청년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청풍이 운영하는 청년마을로,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되었다. 강화유니버스는 강화도 안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와 지역 내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로컬, 주체성, 존중, 다양성, 소통, 재발견, 생태, 환경, 안심, 즐거움, 연결’ 11개 키워드를 바탕으로 강화유니버스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로컬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강화도에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청풍은 강화풍물시장에 피자 화덕식당, 아삭아삭 순무민박을 오픈하였다. 2018년 강화도를 청년들의 생존 실험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동네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청년들은 현재 지역주민들과 함께 로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강화도에 관심이 있는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지역주민을 이해하고 이들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잠시섬’ 체험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강화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로컬을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2박에서 최대 6박까지 머무르면서 ‘동네 어슬렁거리기’, ‘일기 쓰기’, ‘저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를 나누기’, ‘함께 강화 여기저기로 놀러다니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9) <https://saesayon.org/2022/06/20/27944/>
강화유니버스, <http://www.guniverse.net/>



[그림 2-20] 강화 강화유니버스

다. 부산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2022년 부산광역시는 부산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발굴육성 인큐베이팅’, ‘투자연계 액셀러레이팅’, ‘저변확대 마케팅’을 세부 분야로 집중적이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 및 앵커도시를 구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거점상표, 지역가치, 향토음식, 지역기반제조, 자연친화활동, 지역특화관광, 디지털문화체험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가 부산의 잠재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등 미래형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의 먹거리를 연계한 F&B 관련 로컬푸드 분야와 지역 자산을 활용한 제조, 지역가치 창출 및 공간 활용 콘텐츠 개발 등 관련 공간브랜드 분야의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기관을 운영한다. 이들 기관은 특화분야 우수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발굴 및 선정을 하고, 예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을 위해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이들의 사업자등록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투자유치 및 연계 프로그램으로 심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과 투자사 연계를 활용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2022년 브랜딩은 ‘밭(田)으로 나란히’로 하여, 서면 전포동과 부전동의 밭 전(田)자를

차용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가자들이 교류하여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디자인, F&B, 유튜브, 메이커 총 4가지 분야로 전문 크리에이터가 참여자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시공간’은 0에서 시작하는 사이라는 의미로 누구나 편하게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대표 커뮤니티는 살롱드머니(경제공부모임), 파인뎁 큐디저트(수제디저트 클래스), 아이패드폴리오(아이패드 드로잉 및 아트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이 있다.

부산 전리단길 내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거리가 조성되어 팝업스토어이 운영되고 있다. 공유오피스 ‘0.9M’은 1인 창업자, 스타트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로컬 커뮤니티 브랜드 ‘시공간’이 있는 라운지 등이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총 230여 명을 발굴·양성되었으며, 로컬재료를 활용한 비건레스토랑 아르프, 로컬 테일러 기반의 신체 치수측정 및 의류 추천플랫폼인 싸이퍼, 해외 로컬크리에이터를 위한 국내 로케이션 플랫폼 사보이사우나, 차와 술 공간비즈니스 흥경련 등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아르프 키친은 비건 F&B 비즈니스들을 연결하여 영동지역을 거점으로 체류형 관광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채식·비건음식 체험,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분기별 셰프를 초청해 로컬재료를 활용한 비건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³⁰⁾ 영도 지역에 있는 장인 ‘성실두부’, ‘개똥쭈막걸리’, ‘관음사녹차’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여 지역상생에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아르프는 영도 봉래산 녹차를 활용한 쌀술 ‘녹차주’와 두부크림, 훈제두부치즈 등을 개발하였다.

30)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아르프, 채소친화 식공간 아르프키친 연다(서울경제, 2021.7.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Z2ZAXHG>



자료 : <https://www.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2>

[그림 2-21] 비건 아르프 키친

라. 전라북도 예비 청년마을만들기사업³¹⁾

2022년부터 시작된 예비 청년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청년들의 마을에서의 네트워크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단체 혹은 기업, 영리/비영리 또는 컨소시엄, 임의단체, 대표가 청년인 청년단체 기업, 청년 비율이 40%이상인 사업체 등이 해당된다.

사업유형은 지역사회 개발형, 사회서비스형,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역공동체 조성형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개발형은 ‘생태환경, 주거환경, 문화마을 조성 등과 같이 공간적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활동’, 사회서비스형은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 등이 필요한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커뮤니티 비즈니스형은 ‘지역산업, 경제활동, 고용증진 등 경제 및 고용과 관련된 활동’, 지역공동체 조성형은 ‘지역공동체 자체 증진 또는 다양한 사업이 결합된 활동’ 등이 해당된다. 추진 가능한 활동의 예로, 빈집,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역탐색 프로그램, 쓰레기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31)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모집공고문(전라북도, 2022)

해당 사업에서는 행안부 청년마을 견학, 2~3회 이상 전문가 및 멘토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초기에는 컨셉 구체화와 사업추진 방향을, 중기에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사항 보완,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말기에는 사업결과분석과 행안부 공모사업 대응 등이 논의된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주, 정읍, 남원, 김제, 장수가 선정되었으며, 개소당 4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전주 ‘문화통신사협동조합’은 시간은행의 콘셉트로 청년의 성장과 시간을 사회경제적 가치로 확대하고 청년과 주민이 함께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정읍 ‘청정지대’는 구량마을에 농가레스토랑을 조성하고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며,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남원 ‘쓰임 사회적협동조합’은 폐목재 등을 활용하여 목공예 업사이클링을 진행하고 지역 문화탐방, 바자회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김제 ‘농촌을 보고 배우다’는 청년 농업인, 주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연합 플래마켓을 개최하여 청년들의 소득창출 통로를 만들고, 지역 농산물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장수 ‘장수청년산사공’은 청년 재능나눔을 하는 청년쌤스쿨, 창업문화 조성을 하는 청년사장님을 청년 농업농촌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여 청년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지역에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공유주택을 마련하였다.

하반기에 익산 2개소, 남원, 장수, 고창이 각각 1개소가 선정되었다. 익산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 협동조합’은 익산 청년들의 수요 맞춤형 축제, 행사 등을 기획하는 ‘영(young) 구하자’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으며, 익산 ‘사각사각’은 제로웨이스트를 목적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민 대상 환경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활용품, 욕실용품 등을 제로웨이스트 제품으로 제작하였다. 남원 ‘같이엔가치가게 협동조합’은 이웃사촌의 ‘같이’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청년마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고창 ‘해리포터즈’는 기후위기 청년기록자 양성을 통해 북스테이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을 책마을 해리리와 연계해 청년활동과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수 ‘장수군 청년네트워크 협의회’는 청년부모를 대상으로 청년부모교육,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활동하고 있다.

전주 문화통신사 협동조합³²⁾

남소송동에 위치한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은 지역의 문화예술공연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창의적인 예술문화를 하는 이들과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문화 예술 플랫폼이다.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은 순수문화예술공연 정보를 소비자가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도심 속 빈 공간의 역사와 스토리 등을 예술 창작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창조적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 기획·운영, 문화예술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주민공동체 지원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전주의 역사, 자연, 문화에서 전주의 일상과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다양한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지역 브랜드 개발, 미디어 영상 기획 및 제작, 관광상품 연계, 문화자원 체험·공연·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4~50년 전 동네 목욕탕을 ‘again 사랑방’이자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1층은 이전 목욕탕에 붙어있는 타일, ‘물 아껴주세요’ 안내판, 매점 가격표를 그대로 살려놓은 카페로, 나머지 공간은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³³⁾ 마을의 낡고 비어있는 공간들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마을 어른들의 그림과 글로 채워놓았다. 약국에는 아픈 마음을 처방해 줄 어른들의 글, 아이스크림 마트에는 어른들의 그림을 전시하였다. 또한, 믹스커피를 잘 타는 마을 어르신에게는 ‘믹스커피 장인’, 퍼주기 좋아하는 정 많은 분에게는 ‘퍼주기 장인’ 등의 별명을 지워드리며, 마을을 시간마을으로 탈바꿈시켰다. 청년들은 시간마을에서 어르신을 돕거나 말벗이 되는 등 봉사를 하게 되면 ‘폼’을 통장에 쌓아주고, 모은 폼으로 동네 슈퍼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32) <http://www.cttelecom.co.kr/main.php>

33) 지역의 청년들이 앞장서는 문화순환도시를 꿈꾼다.(전민일보, 2022.8.19.)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807>



[그림 2-22] 남소송동 시간마을³⁴⁾

34)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807>,
<http://www.cttelecom.co.kr/main.php>

4. 전북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산어촌의 활력 감소와 열악해지고 있는 정주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 농산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산어촌 주민의 보육,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편의시설 확충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열악한 생활여건에 대한 농산어촌지역 개발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은 도시민 유치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산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빈집 리모델링 지원 등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업은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농산어촌 마을에 구축된 생활편의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지역사회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등의 인적자원의 부족은 농산어촌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하드웨어 중심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농산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산어촌 공동체성과 지속가능성 약화 극복을 위해 지역주민 역량 강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조직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화, 경제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공동체 기초생활 여건 개선부터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자원조사, 주민교육, 조직화를 위한 활동과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의 단계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농산어촌 마을을 경제적 공동체로 인식하며, 경제적 자립을 통한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현재 농산어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제적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농산어촌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과 이를 위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확장되어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활력 제고 방안으로 지역활성화 주체를 육성하는 정책이 있다. 낙후되고 열악해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은 개인 또는 그룹이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모델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활성화 주체들은 ‘로컬’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사업적으로 재브랜딩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가치와 자원을 재발견하며 사업화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지역활성화 주체 육성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를 지역주민과 지역의 이야기와 자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들과 청년들이 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은 지역주민과의 상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체 육성은 지역 활성화에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사업화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 지역과 지역주민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어 농산어촌이 직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과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의 문제에 대한 관점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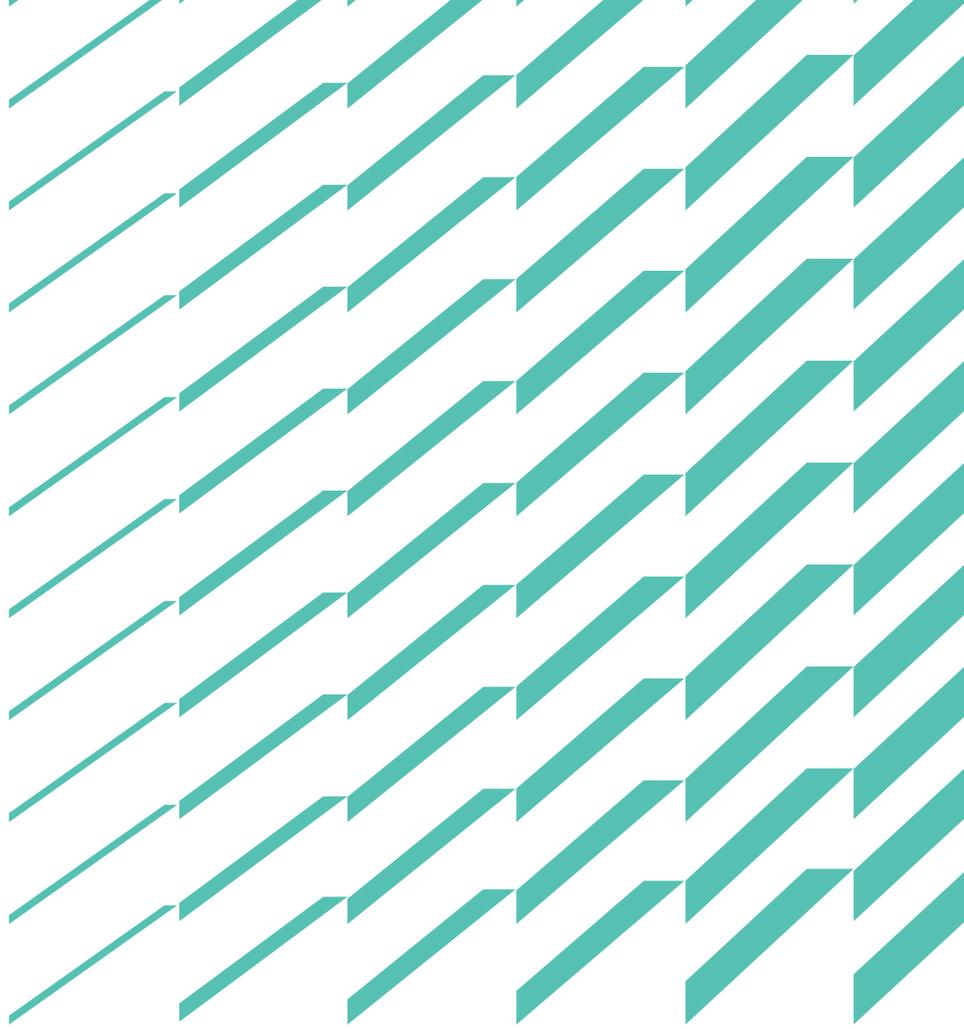
SOC구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지역 내 사회경제적 현안과 관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은 지역 특성에 맞게 이를 운영·관리하고 지역과 주민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개발이 함께 진행될 때 그 효과는 클 것이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문제에 대한 시각의 확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산어촌 활성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은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역량 강화, 로컬의 경제적 가치 발굴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주민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농산어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농산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경제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복지, 교육, 환경 등에서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볼 때, 농산어촌 로컬의 문제와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동체 역량뿐만 아니라 로컬크리에이터, 청년 등의 활동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또는 조직이 지역의 문제를 진단·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로컬)을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사업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적 활성화를 이루고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이 가진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지역활성화 주체를 발굴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여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전북 농산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사업과 지역활성화 주체 지원을 위한 전북 예비 청년마을만들기사업이 있다. 두 사업 모두 인적자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체와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은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경제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전북 예비 청년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활성화 주체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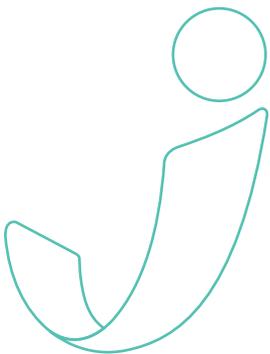
사업은 지역사회개발형, 사회서비스형,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역공동체 조성형으로 구분하여 활력이 감소한 지역을 주민과 함께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정된 청년마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도시와 다른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지역을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제 3 장

사례연구

1. 국외사례
2. 국내사례
3. 시사점



제 3 장 사례연구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시스템, 체계 등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아젠더를 발굴·해결하고, 농산어촌 지역을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과 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국외사례

가. 지역부흥협력대

총무성은 쇠퇴해가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층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이주시켜 이들이 1~3년 동안 지역브랜드 및 특산품 개발, 농림어업 지원, 주민 생산활동 지원 등의 지역협력활동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부흥협력대’를 2009년부터 시행하였다.

수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미현, 군마현, 이바라카현, 야마나시현), 중경권(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긴키권(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사가현, 나라현, 와카야미현)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역부흥협력대에 지원가능하고, 대원으로 위촉된 청년들은 지원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총무성은 대원에게 주거, 활동, 교통, 작업도구 또는 소모품 구입, 회의, 연수, 자격 취득 등에 필요한 활동 경비와 함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1년간 최대 400만엔). 또한, 해촉 후 참여자들의 창업 또는 기업 승계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지역부흥협력대원 수는 2009년 기준 89명에서 2020년 5,46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2024년까지 8,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원은 식·농업, 환경, 복지, 자원봉사, 관광, 육아·교육, IT, 홍보, 마을만들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업무내용은 농산물 판로확대와 홍보가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작업 지원, 가공품 개발, 농산물 포장 등 순으로 나타났다.³⁵⁾

큐슈 오무타 시의 미쓰이 미이케 탄광의 석탄자원을 배경으로 한 석탄화학공업으로 번창했으나, 에너지혁명 등에 의해 종래의 공업이 쇠퇴하고 1987년 탄광이 폐쇄되면서 지역이 쇠퇴하였다. 오무타시 지역부흥협력대원 아베마사 사카에가 운영하는 히토메구리(한 번에 둘러보기) 블로그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오무타시의 여름축제 ‘다이자야마’를 홍보하고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이와 함께, 블로그는 지역의 독특한 공구사, 지역 전통과자장인 등을 소개하면서 관광객 증가와 지역 활력 제고의 역할을 했다.³⁶⁾

2017년 에히메현 이요시의 지역부흥협력대는 모노 코트 만들기의 노하우가 풍부한 대왕제작소와 협력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험(코트)’과 ‘제품(모노)’를 만들었다.³⁷⁾ 4회 세미나를 통해 상품을 개발하고 체험과 연계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지역부흥협력대원 2명과 대왕제작소는 ‘선물’을 테마로 브레인스토밍하여 현지의 잠자는 보물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일상에서 발굴하고 지역의 매력을 느끼는 과정을 가졌다. ‘지역의 물건(모노)에서 체험(코트)’를 만들어 모양과 디자인 운영방식과 체험 가치를 지역주민에 알려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5) 日 농촌 살리는 ‘지역부흥협력대’ (농민신문, 2019.4.1.) <https://www.nongmin.com/309660>

36) 일본-인구감소로 인한 쇠퇴지역에 활력 불어넣기(주민자치, 2016.1.26.)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1>

37) 2017년 지역부흥협력대 합작사업(에히메현 이요시)
<https://ko.daiomfg.co.jp/products/detail/view/560>



자료 : <https://ko.daiomfg.co.jp/products/detail/view/560>

[그림 3-1] 2017 에이메현 이요시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지역부흥협력대원과 대왕제작소의 체험(코트) 가능한 제품(모노)은 총 세 가지로 풍차 클리어파일, 맨홀 코스터, 아크릴 사진 소품이 해당된다. 풍차 클리어 파일은 유채꽃이 잘 피지 않게 되자 축제나 박람회에서 풍차가 될 클리어파일을 배부하며, 주민과 방문객들과 함께 1년 내내 유채꽃이 넘치는 노란 언덕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표면은 풍차, 뒷면은 주사위 놀이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지도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맨홀 코스터로 주택 등에서 나오는 폐재를 사용하여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 지역의 맨홀 디자인을 구운 맨홀 코스터를 만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몰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나모다역에 사람이 너무 많아 기념촬영을 하기 힘들거나 기념될 것이 없어 선물도 가능하고 석양과 바다에 비추는 ‘어디서나 시모나다역이 있다’는 주제로 아크릴에 사진을 넣은 프레임스를 만들어 역 앞 커피숍에서 설치하였다.



자료 : <https://ko.daiomfg.co.jp/products/detail/view/560>

[그림 3-2] 제품 기획 및 생산

나. 일본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학교³⁸⁾

2019년 6월 일본 IT회사 산산(SanSan)과 가미야마 지역의 민간단체 그린 밸리에 의해 시작된 3년간의 지역재생 프로젝트로 마을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학교설립을 준비하여 2023년 4월 1일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神山まるごと高等専門学校)’를 개교할 예정이다.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학교’는 일본 최초로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설립되는 5년제 학교로(개인고향납세 30억 원, 기업고향납세 88억 원), 학생 전원은 기숙

38) <https://kamiyama.ac.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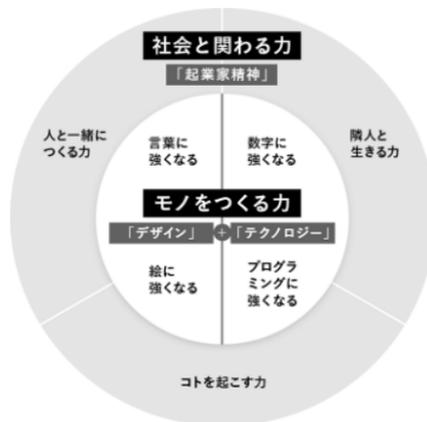
사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림 3-3]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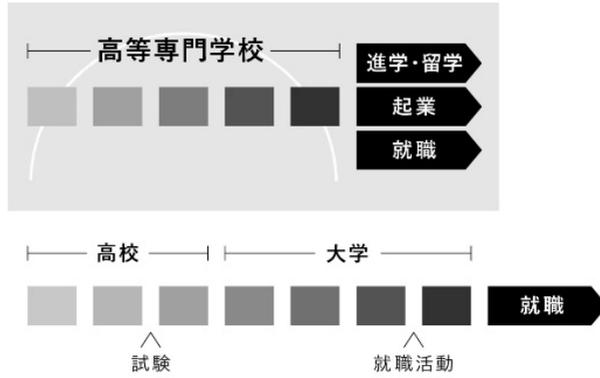
학교는 ‘기술×디자인으로 인간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를 비전으로 하여, 15세 이상이면 입학 가능하며, ‘물건을 만드는 힘으로 일을 일으키는 사람’을 학생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 커리큘럼의 중심에는 ‘사물(상품)을 만드는 힘’을 배치하고 사물의 본질이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 자연이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 매력있는 상품을 만드는 ‘디자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테크놀로지)’로 구성하고 있다. 바깥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사회와 연결하는 힘’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과 함께 만드는 힘’, 지역경제를 이해해 지역과 관계를 만드는 ‘이웃과 살아가는 힘’, 스스로 기업하거나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일을 만드는 힘’을 배치하고 있다.



[그림 3-4]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 교육방향

고등전문학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응축한 5년간의 교육을 마치면, ‘진학, 유학’, ‘창업’, ‘취업’으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그림 3-5] 고등전문학교 교육기관

‘기술×디자인×기업가 정신’을 배우는 고등전문학교는 정보공학에서 전자공학까지 물건을 만드는 힘의 기초를 배우는 ‘기술’,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언어화하는 힘을 기르는 ‘디자인’, 비즈니스의 기본과 기업의 방법뿐만 아니라 일을 일으키는 힘을 기르는 ‘기업가 정신’, ‘기술×디자인×기업가 정신’을 통해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교육이 5년간 진행이 된다.

과목 구분	수업과목
일반 교과	국어 분야 문장 표현 국어Ⅰ 국어Ⅱ 논문 작성법
	영어 분야 영어Ⅰ 영어Ⅱ 영어Ⅲ 영어Ⅳ 영어Ⅴ
	사회과학 분야 현대사회A 현대사회 B 역사 윤리 사회학 기초
	자연과학 분야 기초수학Ⅰ 기초 수학Ⅱ 대수 기하학 미분적분학 확률 통계학 물리 화학 지구·자연환경 해석학Ⅰ 해석학Ⅱ 선형 대수학 이산 수학 정보 수학 인지과학
	보건 체육 분야 보건체육Ⅰ 보건체육Ⅱ 보건 체육Ⅲ 보건 체육Ⅳ
	미술 분야 표현 기초 그래픽 디자인 사진·영상 디자인
전미과목	정보공학분야 IT 부트캠프 정보 공학 기초 기초 프로그래밍Ⅰ 기초 프로그래밍Ⅱ 프로그래밍 연습Ⅰ 프로그래밍 연습Ⅱ 응용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Ⅰ 웹 프로그래밍Ⅱ 알고리즘 전기전자공학기초 IoT 시스템 컴퓨터 아키텍처 전자회로 통계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네트워크 인터넷 컴퓨터 보안
	디자인 분야 에디토리얼 디자인 웹 디자인 UI/UX 디자인 3DCG & CAD 디자인 건축 디자인
	기업가 정신 분야 네이버 후드 개론 A 네이버 후드 연습 안트레올레너십 개론 안트레올레너십 연습 기업가 탐구 엔지니어 탐구 건축가 탐구 디자이너 탐구 아티스트 탐구 기업 워크숍 연습 식농 워크숍 연습 네이버 후드 개론 B
	종합분야 인턴십 디자인 엔지니어링 연습 건축 워크숍 연습 순환형 제품 워크숍 연습 아트 워크숍 연습 디자인 엔지니어링 연습 졸업연구/제작

[그림 3-6] 고등전문학교 교육과정

다. 시부야대학³⁹⁾

도쿄 시부야에 위치하고 있는 시부야대학은 2006년 9월 7일 설립되어, '평생학습과 도시만들기의 결합'을 지원하는 NPO법인으로, 시부야 주민들은 시부야대학에서 다양한 주제의 여가, 문화 강의의 주체가 되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수업을 운영한다. 시부야대학은 '시부야에 관한 모든 사람과 관계되는 것'을 콘셉트로 하여, 대학은 거리의 활력과 특색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자원이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은 시부야대학에서 학생이자, 선생이 된다. 시부야대학은 2006년 개교 이래 1,400이상의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36,000여명이 강좌에 참여하였다.

시부야대학은 '자신의 의지에 근거한 선택과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크게 생각하고 작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의 장을 만든다'를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6개 키워드를 '배우는 것은 더 느슨하고 좋다', '진지한 일 얘기를 하고 싶다',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와 함께 배우자', '모두와 함께 만들기', '모두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지역이 배우는 장소로 변경'으로 하고 있다.

시부야대학의 강좌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기보다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배우고 자신의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부야대학은 다른 이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 고민, 의문 등을 말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 기획, 장소, 시간 등 모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생, 스태프, 학생 등이 함께 만들어가고, 지역의 모든 곳이 배움의 장소로 강조하고 있다.

1) 시부야를 만드는 세미나(노는 마음으로 시부야를 움직이지 않을까요?)⁴⁰⁾

2022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세미나는 '시부야 거리에 아직 없는 것 중 만들어 보고 싶은 것들과 실현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 시부야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미나는 6회기 그룹활동으로 진행된다.

39) <https://www.shibuya-univ.net/>

40) <https://www.shibuya-univ.net/classes/detail/1652/>



[그림 3-7] 시부야를 만드는 세미나

2021년에 진행된 세미나에서 활동했던 그룹 중 한 팀은 시부야 역 동쪽 출구 아래 광장 천장에 있는 시부야 지도와 사람들의 감정이 투영될 수 있도록 단말기에 ‘생각’과 ‘장소’를 입력하면, 지도에 ‘생각’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지도를 ‘마음의 나침반적 존재’로 하여, 시부야라는 거리 안에 자신이 있다는 발상을 추상적으로 예술화하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그림 3-8] 광장 천장×지도×히로아라

2) 쿠라모토와 술(아키자케)를 하자! 술의 마을·이와테현 시바나미초에 배우다⁴¹⁾

2022년 11월 19일에 개최되었던 강좌로서, 히사토 하지메(아유미네 주조 관리자), 토모카와 쇼타(공무원), 아마노 사큐야(작가, 화가)가 음식과 지역·마을만들기를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였다. 교실은 시부야 구에 있는 'Bar 縁'에서 진행되며, 수업은 사토 타카토시가 진행하고, 수업내용은 술의 마을 자와초 소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술 찾기, 쿠라모토와의 대화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수업은 술을 통해 아마노씨와 사와초를 배우는 시간으로 시바나미초의 하쿠모토·아쿠즈마정주조의 사토를 초대해 아키자케를 체험한다. 아니요기 준조는 1684년에 창업하였으며, 이와테현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난부토우지 발상의 곳이다. 해당 수업을 통해 참가자는 주조의 이야기와 일본 술뿐만 아니라 지역의 매력을 찾게 된다.



[그림 3-9] 쿠라모토와 술(아키자케)를 하자

라. 니시아와쿠라 로컬벤처⁴²⁾

2004년 일본의 과소화와 고령화로 진행된 시정촌 합병사업에 니시아와쿠라는 행정합리화를 통해 오히려 마을의 과소화를 가속화된다는 판단에 마을 존속을 위해 합병을 거부하고 지역재생 매니저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 별목나무로 다양한 가구, 장남감을 만드는 공방 목쿤이 오픈하면서 인턴, 직원, 이주자가 생기고, 마을도 창업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07년 면사무소는 마을을 하나의 회사로 선정하고 마을 인사부로서 니시아와쿠라 고용대책협의회를 설립하여, 마을 인사부를 통해 인재를 채용·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신사업을 촉진하는 인턴십을 활성화하였다.

41) <https://www.shibuya-univ.net/classes/detail/1641/>

42) 마키다이스케(2021). 창업의진화-로컬벤처와 지역재생. 더가능연구소.

숲과 나무에서 가치를 만드는 사람을 육성하고 계획에 따른 목재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는 통합상사로 숲학교가 설립되었다. 마을산림은 면사무소가 맡고, 숲학교는 가공·유통·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면사무소 주도로 산림재생에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이주 등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었다.

2015년 니시아와쿠라는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이 생길 수 있도록 창업예정자를 지원하는 로컬벤처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로컬벤처스쿨에 의해 사업 제안이 선정된 이주자는 충무성 지역부흥협력대 자격이 주어지며, 마을에서는 이들을 창업가형 인재로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로컬벤처스쿨 프로그램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매년 7월부터 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획서를 받아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1차 심사에 참여하여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으로서 사업동기, 비전, 실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5개월간 지원자는 벤처 경영자, 벤처육성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멘토의 조언과 상담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게 된다.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친 후, 참가자는 최종심사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계획의 사업화를 위해 최대 3년간 월 20만 엔을 지급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이주 시 지역부흥협력대 지원도 가능하다.

2017년부터 로컬라이프랩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임업, 농업, 관광, 복지 등 분야에서 랩 동기 멤버, 코디네이터, 멘토들의 지원을 받으며 랩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연구생들은 4~5월 두 달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마을 현장조사를 하며, 창업가, 마을주민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면 면사무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생의 조사연구를 지원해준다. 연구생 역시 지역부흥협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1년은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탐색하고, 2년은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니시아와쿠라 로컬-모컬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경영자를 초대해 미래계

획과 현재의 실현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토크 형식의 강의를 2017년에 운영하였다. 참가자는 강사의 성장 과정과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도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구회가 기획되었다.

2. 국내사례

가. 제주 로컬브랜딩스쿨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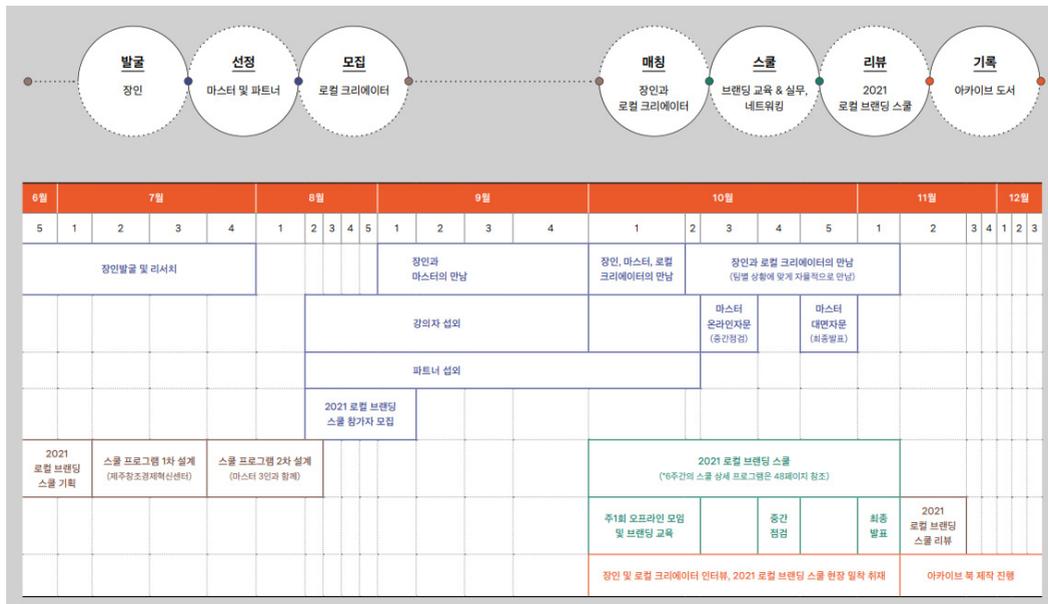
제주 로컬브랜딩스쿨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제주지역 장인의 가치, 자원, 기술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획이나 디자인 등의 능력을 지니고 지역(로컬)에 관심이 많은 이들 중 인지도가 떨어지고 감각적인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제주 장인에 대한 리브랜딩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스쿨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로컬브랜딩스쿨의 제주 장인의 분야를 크게 콘텐츠(지역관광지, 제주 오름), 금속공예(귀금속 세공사), F&B(지역과실주)로 구분하여 분야별 장인과 크리에이터를 매칭시켜 크리에이터는 교육, 프로젝트 활동, 브랜딩 전문마스터의 멘토링 및 관리 등을 통해 제주 자원과 장인을 활용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창업을 준비하였다.

총 6주간 장인과 로컬크리에이터 간의 소통과 로컬크리에이터의 브랜드 실무학습을 위한 전문가가 전문 코칭 역할을 하는 마스터 체계가 도입되었다. 2021 로컬브랜딩스쿨이 선정한 장인은 제주의 특정 장소를 터전으로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 아래 한가지 ‘업’에 종사하고, 로컬의 특성을 담겨 있으며 보존 가치가 높은 기술 혹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스토리를 확보하며, 후학 양성, 기술전수, 현대화 등의 의지가 있는 이로 특징지어진다.

43)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2021 로컬 브랜딩 스쿨 archive.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림 3-10] 제주브랜딩스쿨 운영구조



[그림 3-11] 제주브랜딩스쿨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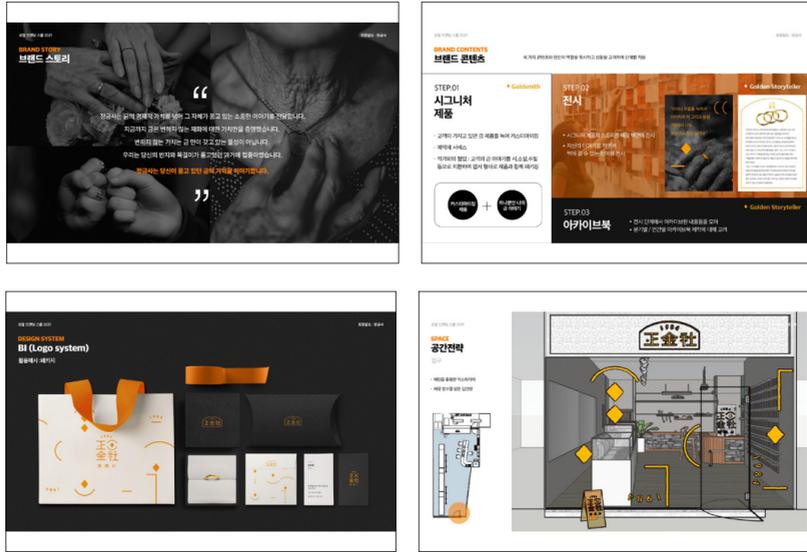
선정된 예비 로컬크리에이터는 수행협약을 통해 팀 활동비(150만원 내외), 제주 로컬 장인과 연결, 팀별 1:1 마스터 브랜딩 실무 자문, 브랜딩·프로젝트·유통·로컬 등 분야의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준다. 2021년에 선정된 크리에이터는 총 14명으로 4팀으로 구성하였다. 4팀은 각각 제주오름보전연구소 김흥구 장인, 한림공원 송상법 장인, 정금사 강만희 장인, 제주와이너리 김판수 장인과 매칭되었다.

로컬브랜딩스쿨에서 총 6주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브랜딩 실무, 네트워킹, 브랜딩 교육으로 구분되며, 첫 주, 둘째 주는 브랜딩 교육은 ‘로컬이라는 경험, 브랜딩이라는 공간’, ‘발견의 힘을 만드는 태도’, ‘지속가능함과 지역을 살리는 기획’, ‘기획자의 체질을 만드는 조사습관’, ‘2021 마케터의 기술’, ‘팬과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의 비결’ 등을 주제로 브랜딩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브랜딩 실무는 팀별 과제-주간점검-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발표를 하였다.

	브랜딩 실무	네트워킹	브랜딩 교육
1ST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구성 발표(최대 4인 1팀) • 4인의 장인 소개 • 로컬 크리에이터와 장인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로컬 브랜딩 스쿨 오리엔테이션 • 2021 로컬 브랜딩 스쿨 • 참가자 / 마스터 / 실무진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 특강: 로컬이라는 경험, 브랜드라는 공간 · 차재 • 로컬 비즈니스 특강: 발견의 힘을 만드는 태도 · 최상희 • 로컬 비즈니스 특강: 지속 가능성과 지역을 살리는 기획 · 전대경
2ND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과제 설정 • 마스터와 팀별 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L BUSINESS TOUR 1 : 디앤디파트먼트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 특강: 기획자의 재정을 만드는 조사 습관 · 김수진 • 마스터 특강: 2021 마케팅의 기술 · 김영미 • 로컬 비즈니스 특강: 팬과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의 비결 · 정문수 / ZOOM
3RD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점검 전 마스터 대면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L BUSINESS TOUR 2 : 한림공원 	-
4TH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점검 • 파트너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 참석 	-
5TH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발표 전 마스터 온라인 자문 	-	-
6TH WE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발표 • 파트너 피드백 • 장인 소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인과 장인 가족 참석 • 파트너 참석 	-

[그림 3-12] 제주브랜딩스쿨 프로그램(6주)

50여 년 전 제주 칠성로에서 세공 기술을 배우고 정금사를 통해 38년간 귀금속을 세공한 강만희 장인에 대한 리브랜딩 작업을 수행한 팀의 경우, 정금사의 현안은 ‘공간의 노후화’ 및 ‘장인성의 재발견 및 정립’과 함께 ‘국내 금은방의 사양화’, ‘제주 칠성로의 쇠퇴’로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金)과 은(銀)을 ‘지금 금(今)’, ‘숨은 은(隱)’으로 새로이 해석하여 정금사를 ‘지금까지 숨어 있던 이야기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장인의 역할을 ‘Golden Storyteller’로 규정하였으며,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첫째, 고객의 금제품에서 숨어있는 이야기를 다양한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 수필 등으로 만들어 엽서 형태로 제품과 함께 패키징하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두 번째로, 정금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매장 한쪽 벽면에 콘텐츠를 전시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이야기를 분기 혹은 연간별 아카이브 북으로 제작하는 브랜드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정금사를 고객들의 이야기와 기억을 지키는 공간으로 재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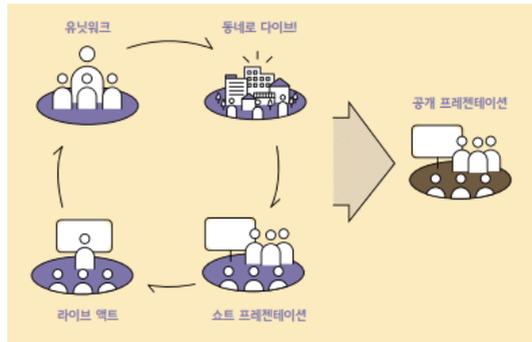


[그림 3-13] 정금사 리브랜딩

나. 제주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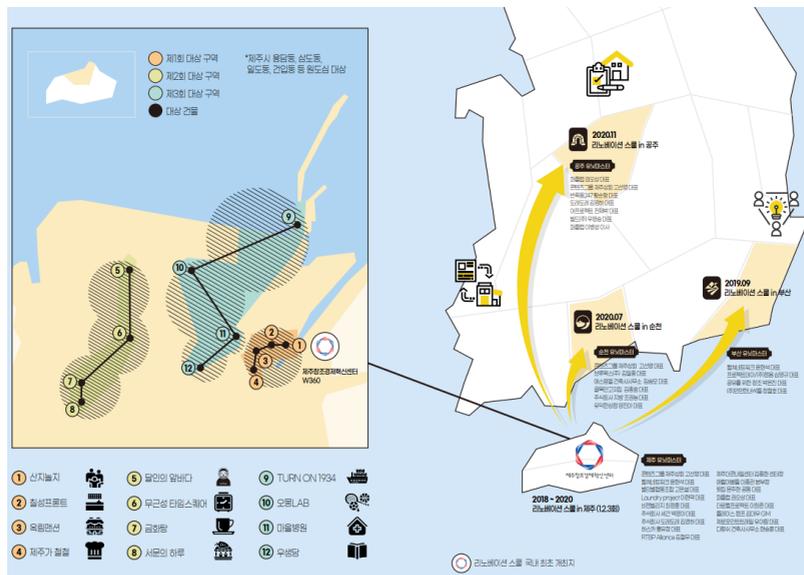
제주창조혁신센터는 원도심의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원도심을 창업생태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리노베이션 스쿨 인 제주’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리노베이션 스쿨은 원도심의 빈집, 빈가게 등 유휴 부동산을 대상으로 참가자가 4일간 지역재생을 위한 사업계획을 기획하는 교육과정이다. 6~8명 정도의 참여자가 팀이 되어,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만드는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실천가들은 퍼실리테이터 역할과 강의를 통해 각 팀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행정과 전문가들과 함께 각 팀의 사업계획의 실현성을 파악하고, 계획을 실행하고자 졸업생은 지역 매니지먼트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44)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2020).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비즈니스를 발명하자.



[그림 3-14] 리노베이션 스쿨 운영과정

총 4일간 각 팀은 해당 건물을 견학하고, 주변 지역을 조사·진단하며 강의와 함께 사업계획을 매일 발표·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팀들은 최종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마무리하게 된다.



[그림 3-15] 리노베이션 스쿨 인 제주

한 예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인 '우생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은 밴드 동아리 연습실, 지상 1층은 우생당, 지상 2~3층은 공실,

4층은 건물주의 주거공간이다. 리노베이션 스쿨 인 제주를 통해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은 우생당을 ‘친구가 생기는 집’이라는 의미를 살려 책을 벗 삼아 친구를 만나는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제주청년센터, 소통협력센터, 문화예술인의 입주공간이 인근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우생당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테마를 결정하였다. 주요 고객으로 우생당에 애정이 있는 노년층,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설정하였다. 사업계획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공간을 ‘과거-미래-현재’로 구성하여 1층 우생당을 시작으로 2층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 3층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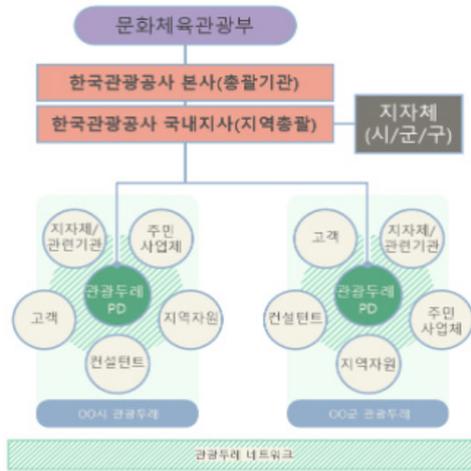


[그림 3-16] 제주 우생당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PD45)

2013년부터 시작된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특색있는 숙박, 음식, 여행, 레저, 체험 등을 발굴, 판매하는 관광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광두레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지역관광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45) 관광두레, <https://tourdure.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2018 관광두레사업지침.



[그림 3-17] 관광두레사업 추진체계⁴⁶⁾

주민공동체가 지역자원을 관광상품으로 비즈니스화하여 관광사업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현장에서 주민사업체 발굴부터 조직화까지, 창업부터 경영개선까지 지원을 총괄 진행하며, 관광두레사업단과 주민, 지자체와 주민, 수요자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관계에서 중간지원역할 수행을 관광두레 프로듀서(관광두레PD)가 담당하게 된다.

관광두레PD의 주요 역할은 ‘지역 관광자원 조사, 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관광두레PD가 갖춰야 할 역량을 기초, 심화,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관광두레PD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초·심화·실행 단계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워크숍, 견학 등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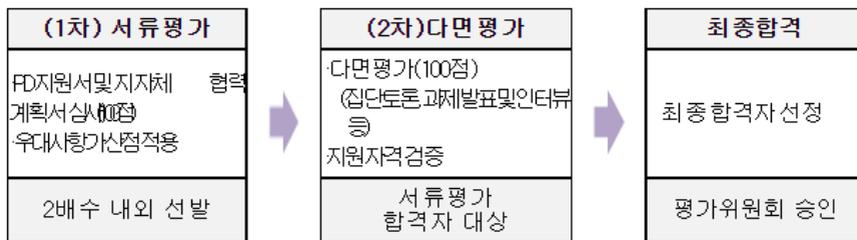
관광두레PD는 주민사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관광두레 콘셉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컨설팅과 지역전문가와와의 현장네트워크를 통해 관광두레 사업 취지, 지역관광 현안, 자원, 지자체의 관광 비전 등을 고려하여 자원조사 및 지역관광 현안을 진단한다. 현장 네트워킹을 위해 관광두레PD는 지역전문가와 매칭전문가와 함께 관광두레PD의 구상안에 대한 논의한다.

관광두레PD를 중심으로 한 기획 프로젝트는 PD 및 주민사업체의 역량강화, 네트워크

46) 2023년 관광두레PD 선발 공고문

구축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년차 관광두레PD의 경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회, 포럼, 아카데미 등 관광 관련 전문지식 강화 또는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회 활동을 지원받고, 봄, 가을 여행주간동안 지역 또는 권역 단위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두레PD는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기획된 여행상품을 위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의 실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서류, 다면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관광두레PD는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하는데 역할을 수행한다. 기초지자체 당 1명의 관광두레PD를 선출하는데, 관광두레PD는 기획, 문제해결, 소통 등 자질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받기 위하여 서류평가뿐만 아니라 집단토론, 과제발표 및 인터뷰 등 다면평가를 통해 선발된다.



[그림 3-18] 관광두레PD 선정절차

선정된 관광두레PD는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관광두레 사업추진을 전담하고 지역자원조사 및 지역진단을 시행하며, 관광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을 받는다. 주민사업체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내외 관광두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들은 월 250만원의 기본활동비를 지급받고, 2차년도부터 성과에 따라 차등 활동비 추가 지급이 가능해진다.

2021년까지 109개 지역이 관광두레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822개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하였다. 2022년 관광두레사업 지역은 부산 진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경기 부천, 경기 남양주, 강원 영월, 충북 충주, 충남 보령, 충남 금산, 전북 전주, 전북 완주, 전남 무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경북 청도, 경남 창원이다.

시흥관광두레⁴⁷⁾

시흥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들이 지향하는 비전인 '시선'은 '시흥 관광을 위해 함께 하는 사람들을 잇는 선'을 의미한다. 시흥관광두레는 2016년부터 시흥의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연꽃테마파크 등 관광자원 속에서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상품(음식, 음료, 기념품 등)과 서비스를 시흥 방문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9] 시흥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총 6개로, '풀이랑', '30' 씨티미닛홈스테이', '동네봄', '하이갯골', '꾸러미', '테이블 담풀' 등이 해당된다. '풀이랑'은 수초를 활용하여 미니수초어항과 반려수초 조명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판매하고 있다. '30' 씨티미닛홈스테이는 시흥 어촌의 자연과 로컬을 경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 갯벌체험 프로그램, 로컬쿠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네봄'의 대표상품은 어촌운동회로, 동네봄은 시흥 어촌의 감성을 6인 6색 여행디자이너가 기획한 다양한 여행인 공정여행, 교육, 체험, 마을여행, 워크숍 여행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갯골'은 '미션을 완수하라! 갯골탐험대'를 대표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은 시흥갯골생태공원을 하나의 보드게임 판으로 만들어 미션을 해결해나가며 갯골을 배우게 된다. '꾸러미'는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장소와 음식들로 구성된 여행꾸러미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47) 시흥관광두레, <https://siheungtourdure.modo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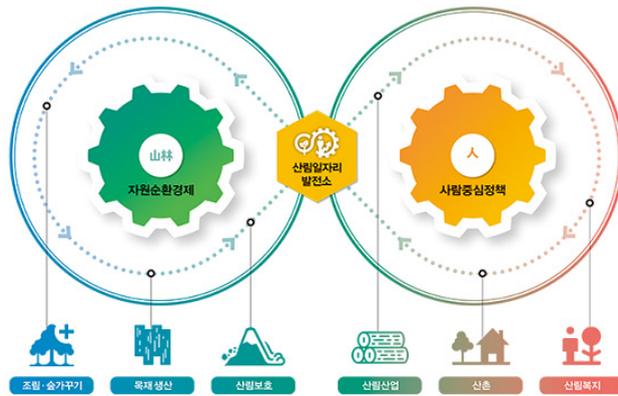
2019년
 이랑
 동네
 하이
 개골 Hi Gaetgol



[그림 3-20] 시흥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라. 산림청 그루매니저⁴⁸⁾

현장에서 산림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재능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조직인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림 3-21] 산림일자리발전소 추진체계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양질의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현장밀착형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주민을 사업주체로 육성 후 창업을 지원하며, 사람 중심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타 분야와의 융복합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산림일자리발전소의 주요 사업은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인재양성, 사업육성, 홍보 등이 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그루공동체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높이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그루경영체를 발굴하고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조사 및 지역진단과 함께 그루경영체 역량을 강화한다. 2차년도에는 그루경영체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체별 맞춤형 자문 및

48) https://www.kofpi.or.kr/service/forestJob_01.do

멘토링을 지원하며, 파일럿 사업을 운영, 지원하는 동시에, 경영체의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한다. 3차년도는 그루경영체의 지속성장 및 모범사례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체 운영 및 전략리뷰를 통해 경영을 지원하고, 경영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 중점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한다. 이후 경영체의 자생력 정도를 종합평가하여 선발된 경영체는 추가적으로 2년간 경영의 다각화 및 수익 확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영역 확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그림 3-22] 그루 경영체 연차별 사업내용

그루공동체의 지속성장과 안정적 경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한, 공동체의 비즈니스 모델 보완을 위해 내부 역량강화와 창업을 위한 실습과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산림일자리 관련 창업 및 공모사업 관련 정보를 공동체에 제공하고, 그루경영체 간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그루경영체 특성에 맞게 지원 및 공모사업 사업 계획 수립과 다양한 홍보채널 및 리플릿 제작 등을 지원하고, 그루경영체의 상품 또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유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3-23] 그루경영체 주요 지원내용

지역 현장에서 자원과 인적자원 발굴과 비즈니스모델의 그루경영체를 발굴·조직화하여 창업과 지속성장까지 그루매니저는 그루경영체와 구성원들과 함께 경영체 육성방식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그림 3-24] 그루매니저 육성 및 역할

그루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 기본소양, 역량교육뿐만 아니라 벤치마킹, 외부 교육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단계별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한다(산림청, 2019).⁴⁹⁾ 기본역량 교육은 크게 선행학습, 기본소양, 역량교육이 진행되며, 선행학습에서는 참가자는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과 그루매니저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예비 그루매니저는 그루매니저의 기초소양을 갖추기 위해 산림·산촌·사회적경제 이해교육과 지역자원조사 방법교육에 참여한다. 예비 그루매니저는 주간, 월간, 연차별 보고서,

49) 산림청. (2019). 산림관광자원 조사·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산림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직무역량 강화 및 사업공유 워크숍을 위해 이들은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례 및 산림비즈니스 육성 관련 성공지 견학, 유관기관 방문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그루매니저의 사업 이해, 역량강화,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활동을 점진 및 개선하며 활동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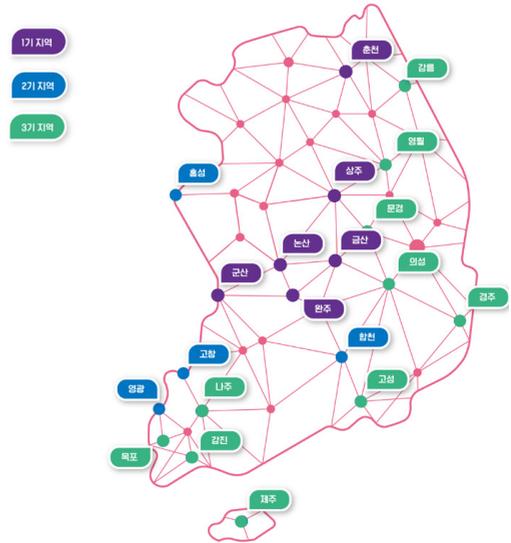
2018년부터 현재까지 42명의 그루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163개 그루경영체가 발굴, 운영되고 있다. 2022년 제4기 그루매니저는 경기 용인, 경기 안산, 인천 남동구, 충북 제천, 충북 진천, 충남 부여, 충남 금산,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북 부안, 전남 광양 등에서 그루경영체를 발굴, 육성하였다. 그루경영체는 2년간 견학, 자문, 워크숍, 교육, 네트워크, 법인화, 홍보,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받으며, 현장에서 그루경영체를 밀착해 컨설팅하는 그루매니저의 지원을 받는다.

마. 넥스트로컬⁵⁰⁾

서울시 넥스트로컬은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거나 지역사회 활성화 및 가치창출에 의지가 있는 서울시 거주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이다. 선발된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은 8개월간 매칭된 지역에서 마케팅·유통, 식품/상품 가공·개발, 문화/복지/정보 서비스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원활한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파트너의 도움을 받으며, 온라인교육,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 전문가특강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창업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은 개별 맞춤형 1:1 전담 코치제도, 체류공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참가자는 8개월 동안 지역방문과 자원조사를 위한 활동비와 사업화과정의 비용을 지원받으며, 후속지원으로 이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고도화하는데 투자유치 및 판로지원을 받는다.

50) 넥스트로컬, <http://www.seoulnextlocal.co.kr/index.html>



[그림 3-25] 서울시 넥스트로컬

2022년에는 104개팀 203명의 예비 청년창업가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창업가능한 분야와 콘텐츠를 발굴하였다. 이중 42개 팀 74명은 6개월간 창업교육과 최대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그림 3-26] 제4기 넥스트로컬 프로그램 일정(22.6~23.10, 16개월)

지역자원조사는 참가자가 약 2개월동안 지역현장에서 지역파트너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들이 지역자원(자연, 문화, 역사 등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 협력주체는 지역파트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토착기업이 해당된다.

창업교육은 참가자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에서 창업 코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실천 워크숍과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창업 육성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의 밀착 코칭을 통해 참가자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협력주체는 창업코치,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파트너를 포함한다.



[그림 3-27] 넥스트로컬 참가자 활동 과정⁵¹⁾

넥스트로컬 운영주체는 서울시,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지자체, 운영사무국으로 서울시는 사업 총괄 운영, 사업비 및 지자체 협력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참여자 선발,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과 지역정착 후속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사무국은 모집 관리, 세부 프로그램 운영, 창업 팀·자문단·코치를 관리하고 있다. 지원주체인 지역파트너, 창업 코치, 전문가의 경우, 지역파트너는 지역자원조사, 지역 캠프 기획·운영, 지역 네트워크 연계, 창업코치는 교육 콘텐츠 개발, 창업 교육 운영·관리, 전문가는 분야·주제별로 특강, 평가, 관리 등에 참여한다.

51) 서울시. (2020). 넥스트로컬: 2019.9-2020.4 넥스트로컬 1기의 마침표를 찍으며. 서울시.



[그림 3-28] 넥스트로컬 운영조직 및 주요 역할

1) 시간을 쏙다 (1기)

인삼 재고문제를 안고 있었던 금산 지역의 현황과 영세 양조장의 경영난의 문제를 연계하여 '시간을 쏙다'는 금산 인삼을 활용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개발하여 지역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시장조사 결과, 금산을 대표하는 인삼주가 없어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1종 출시, 8곳 이상의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 내 농가 확대, 사라져가는 전통주인 가양주 문화를 부활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넥스트로컬을 통해 사람과 진정성이 창업의 중요 요소이며,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또한 필요함을 참여자는 강조하였다. 참가자는 향후 천연 발효 식초 프로젝트를 병행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건강한 식품 생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림 3-29] 시간을 쌓다

2) 여기공 협동조합

여기공 협동조합은 공구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 기회가 없었던 의성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동드릴, 집수리 등 기술교육을 진행하며 여성과 기술이 연결되는 장을 제공하였다. 여기공 협동조합은 의성군 여성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및 의성 여성 대상 공구 워크숍 개최, 의성군 이웃사촌지역센터 MOU체결, 의성군청·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성군 여성협의회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넥스트로컬을 통해 참가자들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기술을 배우는 모습에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청소년 대상 집수리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림 3-30] 여기공 협동조합

바. 전북 생생마을대학

지역 내 농업농촌형 일자리와 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경험 등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는 생생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문화·복지분야, 농식품제조가공분야 리더 교육이 3주간 진행되었다.⁵²⁾ 문화·복지분야의 경우,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이해 및 프로그램 활용 가능한 사업주체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제도 이해, 지역단위 문화·복지 활동 사례, 지역현황에 따른 프로그램, 지역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해, 마을단위 지역사회서비스제도 개발 및 지역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3-31] 2018년 생생마을대학(문화복지분야)

2019년 생생마을대학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농업농촌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⁵³⁾ 농업농촌에 관심있는 일반인 또는 대학생, 농업농촌 관련 활동 2년 미만의 실무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지원가능하고, 교육과정

52) 2018년 생생마을대학 <문화·복지분야 공동체리더 양성과정> 안내문

53) 2019년 생생마을대학 <전문인력 양성과정> 안내문

은 이론, 실습, 현장답사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은 주로 농업농촌의 이해 및 관련 실무에 필요한 분야별 직무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진사례 현장 답사 및 사례 청취를 할 수 있는 현장답사가 진행된다. 이론교육 주요내용은 농업농촌 이해, 농업농촌생활 공감대 형성, 사업기획·문서작성 등 실무,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관리역량, 마케팅 등 사업화단계에 필요한 역량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농촌 특성 이해와 농업농촌형 일자리 체험을 위한 홈스테이와 농촌살이 체험은 현장답사의 주요내용이다. 생생마을대학은 참가자들에게 농촌마을 컨설팅, 마을사무장,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현장활동가, 농업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3-32] 2019년 생생마을대학

2020년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공동체 실무담당자, 귀농귀촌인 또는 희망자, 관련 기관 실무자, 농업농촌 또는 사회적농업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기획관리사, 농촌체험관광해설사, 마음원에교육지도사, 농촌체험힐링푸드지도사, 팜파티플래너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콘텐츠기획관리사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 제작, 활용,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농업농촌 이해, 보조금 사용법, 세무회계,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었다.

2021년 생생마을대학은 공동체 리더 양성을 위해 농어촌개발컨설팅트(RDC)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4주간 총 30시간동안 농촌협약 교육대상자(행정, 중간지원조직, 지역리더

등)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농어촌 인적자원 관리, 농어촌 환경개선, 농어촌 소득관리, 컨설팅 등 관련 역량 향상 관련 교육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교육과정에서는 시군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농촌지역 갈등을 위한 이론 교육(갈등의 원리 및 이해, 갈등조사 및 분석, 갈등사례 및 유형) 및 실습(비폭력대화기법, 퍼실리테이션 기법 이해 및 조정사례), 현장 적용이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시군 마을리더 및 주민,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 리더교육과정은 참가자의 정책역량, 사업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전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정책 및 사업 흐름, (지원사업)서류·진행·정산 관련 업무,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업운영 실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도에 진행된 생생마을대학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체 리더 역량강화 교육, 농촌축제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전라북도 생생마을 갈등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 이어 공동체 리더 역량강화 교육과 전라북도 생생마을 갈등관리 담당자 교육은 운영되었다. 전북 도내 마을위원장, 사무장, 이장 등 농촌축제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한 농촌축제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은 농촌축제 개념과 정책, 기획법, 실무, 선진사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3. 시사점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의 육성과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산어촌의 문제는 경제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다른 이들과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관점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부흥협력대, 시부야대학, 니시아와쿠라 로컬벤처, 제주 로컬브랜딩스쿨, 관광두레PD 등의 사례를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이 어떠한 관계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 때 지역을 변화시키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개인 또는 조직을 육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을 변화시키거나 활성화하는 주체인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데 투입되는 인적자원은 전문가, 활동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또한 포함된다. 지역과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농산어촌 주민들은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발상을 제안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는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활성화 주체 육성과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 또는 조직은 현장에서 전문가, 활동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와 활동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 주체인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다양한 주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크리에이터에게 네트워킹은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이টে임을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의 네트워크는 기초 역량 또는 공동체성이 약한 지역과의 협력과 활동을 통해 연대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크리에이터 간의 네트워크는 협업을 통해 새로운 로컬문화를 창출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인재인 크리에이터 양성은 지역의 작은 것으로부터 지역을 배우고,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며 지역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련의 과정은 지역 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유무형의 자원이 지역을 변화·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크리에이터의 학습 과정이자 역할이다. 현재, 기존 지역활성화 주체는 낙후된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재브랜드하여 사업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역활성화는 경제적인 것을 벗어나 다양한 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크리에이터 육성과 활동은 현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 및 활동공간은 고정화된 장소에서 진행될 필요가 없다.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교육과 활동의 지역성과 개방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가 지역자원과 적합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들의 아이템의 사업화, 구체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유희공간의 활용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터 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공참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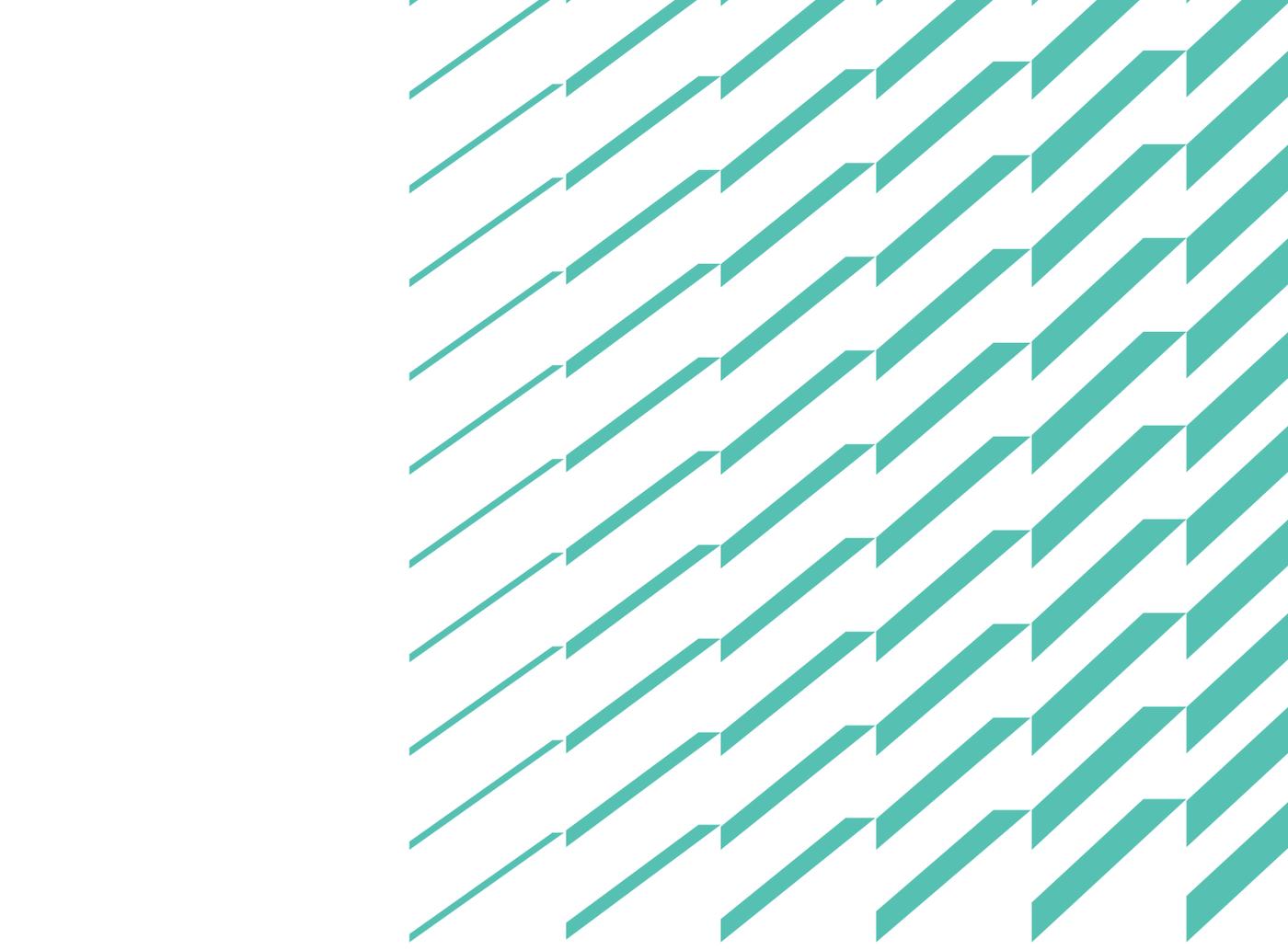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은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 등 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환경,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산어촌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의미한다.

둘째, 크리에이터 육성과 활동과정에 다양한 주체(전문가, 활동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크리에이터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셋째,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동은 지역성과 개방성을 반영하여 고정화되지 않은 시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유연한 현장과 관계에서 크리에이터의 시각 확대와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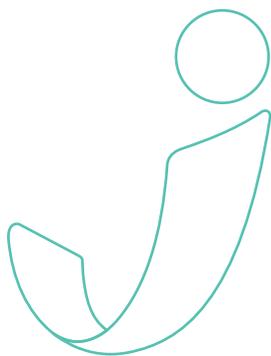
넷째, 크리에이터 육성 후, 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외 사례들의 경우, 지역활성화 주체들의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나, 교육시스템 이후 이들의 활동 지속성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크리에이터 육성 후, 이들의 활동 지속성을 위한 자립화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4장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1. 기본구상
2.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3. 운영조직 및 주체
4.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활동 영역



제 4 장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1. 기본구상

가. 정의 및 역할

크리에이터(creator)는 사전적으로는 ‘만드는 사람, 창조자, 창작자, 개발자, 생산자 등과 같이 새롭게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에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낙후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 활성화 주체를 육성하는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의 숨겨진 자원과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문화와 유무형의 상품을 만들어 사업화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청년마을 등을 발굴·지원하는 사업들이 그 예이다.

현재 농산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도시지역에 비해 정주여건,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분야 전반으로 열악하다. 지역활성화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주민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도시민 유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산어촌의 인구유출과 고령화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농산어촌의 인구학적 여건은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부족을 의미하고 있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 확보 및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활력 도모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역의 문제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를 ‘개인 또는 단체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농산어촌의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로컬 탐색자이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는 지역 내에서 지역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역을 배우고 이해한다. 크리에이티브의 지역적인 관점과 사고를 바탕으로 지역을 재해석한다.

둘째,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숨겨진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가치를 찾아내는 로컬 발굴가이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는 지역적인 관점과 사고를 통해 지역을 진단하여 재해석된 지역에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의 유무형 자원에서 새로운 콘텐츠와 가치를 발굴한다. 크리에이티브는 지역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자원과 가치에 주목한다.

셋째,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는 발굴한 자원과 가치를 재해석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로컬 혁신가이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는 숨겨진 지역자원의 이야기와 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수요에 맞게 발굴된 사업화 모델과 콘텐츠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을 변화시킨다.

넷째,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는 형성된 지역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지역활성화 주체를 발굴, 육성하는 로컬 교육자이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는 공동체와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새로운 자원과 가치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화 모델과 콘텐츠를 적용하여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와 주민과의 협업은 공동체와 주민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화 모델과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활성화 주체로 성장시켜야 한다.

나. 기본구상

이 연구는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활성화 주체인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활동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열악해진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활성화 주체를 발굴하여 이들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네트워크 형성 없이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기 때문에 이들 콘텐츠의 지역성, 전문성, 지속성 등이 다소 미흡하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현장에서 크리에이터를 발굴이 아닌 육성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 지역성, 혁신성을 강화하고, 크리에이터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현재 농산어촌 지역에 직면한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모델은 영역별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진단·접근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기본구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① 지역성을 갖춘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양성, ②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성장·확장하는 환경조성, ③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 확충, ④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개방성과 역동성 강화 등으로 구성한다.

첫째, 지역성을 갖춘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비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지역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을 통해서가 아닌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에서 지역과 주민과의 관계를 맺고 주민의 일상과 이야기 속에서 지역을 체험할 때, 예비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숨겨진 유무형 자원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사람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과 사고를 키울 수 있다.

둘째,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지역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우선 필요하다. 크리에이터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숨겨진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에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림어업, 인문학, 철학, 사회문화, 경제,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시각과 사고가 요구되는 크리에이터에게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 활동가, 공무원,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중요하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 주체들과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득할 수 있다.

셋째, 크리에이터가 농산어촌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면, 이들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콘텐츠 실행에 필요한 물적,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지닌 농산어촌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지원을 한다.

넷째, 크리에이터는 농산어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중요 역할이라고 볼 수 없다.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수요와 역량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활동 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크리에이터의 활동의 지속성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적자원이 감소하는 농산어촌에서 크리에이터의 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 인적자원 확보와 함께 공동체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크리에이터는 공동체와 주민이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가 역동적이고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고, 농산어촌의 내적 발전력이 강화되어 활력이 제고될 것이다.

2.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가. 예비 크리에이터의 지역성 강화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역할은 지역활력 도모를 위하여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는 혁신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 능력이 요구된다.

예비 크리에이터의 교육과 훈련과정은 ‘이 농산어촌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예비 크리에이터는 해당 질문에 따라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으로 이주·체류하게 된다.

예비 크리에이터의 첫 번째 교육과정인 ‘지역 이해하기’는 지역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맺으며 시작된다. 지역주민의 일상과 지역의 시공간은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담고 있다. 예비 크리에이터는 체류하고 있는 지역을 탐색하고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훈련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자신의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예비 크리에이터의 지역성 강화 과정은 크게 ‘지역 탐색하기’와 ‘관계 맺기’로 구성한다. ‘지역 탐색하기’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특정한 주제없이 지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비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역으로 여행’을 운영한다. 한 예로, ‘완주군 고산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일상을 담은 청년매거진’과 같이 지역 탐색을 위해 마을을 다니며 마을의 주요 센터, 기관, 시설 등을 방문하여 위치, 기능 등을 파악하고 지도를 그려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또는, 지역 대표 음식 레시피, 지역주민의 음식 레시피, 로컬음식 및 상품, 지역행사 등을 소개하는 매거진 제작 및 발간은 한 예로 들 수 있다.

어하는 이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잠시섬’ 프로젝트는 강화섬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지역주민이 개설하는 요가강좌, 비건요리강좌 등에 참여하며 강사와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 지역을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시부야대학의 경우, 어린이가 개설한 지역여행 프로그램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도시지역의 이야기를 통해 학습자들이 지역을 배워가고 지역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탐색과 관계를 통해 예비 크리에이터의 지역체험과 이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이해하기’ 과정 기간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또는 조직이 지역파트너로 활동하며, 이들의 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나. 예비 크리에이터의 전문성과 창의성 향상 기반 조성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두 번째 단계는 지역적인 관점과 사고를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지역을 진단하고 현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해당 과정은 예비 크리에이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발휘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크리에이터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게 된다. 이 단계는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사고와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체(전문가, 활동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의 조언과 협업을 통해 예비 크리에이터가 지역 문제해결 방안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각 분야 전문가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독창적이고 안정적인 콘텐츠와 사고를 접하며, 예비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방식은 ‘크리에이팅 랩’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정을 마친 예비 크리에이터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지역문화와 가치를 만드는 개인 또는 조직의 연구생으로 참여한다. 농업, 임업, 어업, 관광, 복지, 문화, 경제 등에서 독자적인 자원, 기술 등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개인 또는 조직을 멘토로 하여 장인정신을 계승하고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동시에, 멘토와 함께 지역 탐색 과정에서 발굴한 지역 현안과 랩에서 배우는 기술

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콘텐츠, 가치 등을 발굴하게 된다. 크리에이팅 랩은 단순히 전문가의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랩 멤버들이 함께 농산어촌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 실행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개인 또는 그룹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과 도움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실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 된다.

두 번째 방식은 ‘프로젝트형 스쿨’로, 개인 또는 그룹이 지역의 숨겨진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로 재브랜드화하는 것이다. 프로젝트형 스쿨은 특정 농산어촌 지역 현안을 가지고 예비 크리에이터들에게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과정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천가들과 함께 문제해결 방안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자원을 조사하며 교육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콘텐츠 등을 기획하고 보완·수정과정을 거쳐 실행가능한 계획안을 마련한다. 계획안을 스쿨 멘토단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은 물적, 인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젝트형 스쿨의 한 예로, 전주 완산구 디렉트룸의 공교육에서 진행해왔던 영화제작 캠프 ‘좋아서 하는 영화캠프’를 들 수 있다. 영상제작 캠프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적정 참가비를 도출하고 캠프 운영 방법과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실행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마련하였다.



[그림 4-2] 디렉트룸 ‘좋아서 하는 영화캠프’

다.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활동기반 확충

교육과 훈련을 마친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이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농산어촌 크리에이터가 본격적인 활동 전 자신이 어떤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는 관심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해당 지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체류비와 활동비를 제공한다. 농산어촌 지역에 이주하여 체류하는 크리에이터는 지역탐색을 위해 주민과의 관계 맺기, 지역 탐험, 여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갖는다. 지역을 이해하고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찾는다. 크리에이터의 탐색 및 활동 지역은 예비 크리에이터 교육기간동안 체류했던 지역 또는 새로운 지역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지원단계는 크리에이터의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이다. 크리에이터는 우선 농산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숨겨진 자원과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실행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받는다. 크리에이터의 기획과 실행과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네트워킹과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의 멘토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과 '지역 캠퍼스'에 소속되어 체계적인 지원과 성과관리를 받게 된다. 크리에이터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3년간 최저임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작업공간을 지원받기 위하여 지역별로 농산어촌의 유휴시설은 크리에이터 공유공간으로 활용된다.

마지막 단계는 크리에이터의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지원단계이다. 3년간의 활동기간을 마친 크리에이터의 자립화를 위하여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은 지속적으로 크리에이터를 관리·지원한다. 지난 3년간 크리에이터의 활동 성과평가 후, 크리에이터의 자립화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크리에이터 활동 기간동안 체류했던 지역 또는 새로운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들이 보완된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기획한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등이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급망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또는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융화 및 협업 가능한 지원이 크리에이터에게 제공된다.

이들은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 또는 ‘지역 캠퍼스’로부터 최저임금을 받고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멘토 또는 파트너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또는 청년마을마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이들은 농산어촌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이를 비즈니스모델의 현실화 가능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라.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확장

농산어촌 지역의 활력 도모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크리에이터의 활동에서 공동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업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과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인적자원의 부족은 공동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동체와 주민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크리에이터와 공동체·주민과의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좌우된다.

공동체와 주민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크리에이터는 자신과 함께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해 지역의 숨겨진 유무형 자원의 사업화 모델과 콘텐츠를 발굴하여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와 지역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지역활성화 주체로서 성장하여 크리에이터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업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가 공동체와 주민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강사로 활동하도록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은 크리에이터를 지원해야 한다. 크리에이터는 공동체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진단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주민과 공동체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공동체와 주민은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의 활동에 참여, 협업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과정은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공동체와 주민이 지역활성화 주체로서의 성장은 크리에이터의 궁극적인 활동의 목적이기도 하다.

농산어촌 지역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역의 특색과 자원에 따라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은 다르다. 크리에이터는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형 콘텐츠와 사업화 모델을 발굴·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크리에이터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지역공동체, 크리에이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에이터가 지역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공사례를 접하면서,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재구조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와 시각을 확장하게 된다. 또한, 지역별 크리에이터의 업무추진에서 교류와 협력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와 비즈니스모델의 고도화로 이어지며,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콘텐츠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운영조직 및 주체

현재, 로컬크리에이터, 청년마을 조직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이 지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훈련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또한, 교육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 기관은 기존 학교와는 다른 기관으로서 물리적, 공간적으로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개념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현장에서 지역을 이해하고 공동체와 주민,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를 맺으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실현하기 때문에 육성 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가. 조직체계

1)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주도하는 전담기관으로 가칭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을 설립·운영한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은 크리에이터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농산어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주체들을 육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크리에이터 교육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주요 업무로 교육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집행·결산을 하게 된다. 주요 기능은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 및 관리, 지역 캠퍼스 및 공유작업장 관리, 교육생 선발, 크리에이터 관리 등이 해당된다.

해당 기관은 예비 크리에이터가 지역성, 창의성, 전문성, 문화성 등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모델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보급·평가하며,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은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하는 것 이외에도 교육을 수료한 크리에이터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한다. 해당 기관은 육

성된 크리에이터 DB를 구축·관리하며, 크리에이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과관리, 보수교육, 컨설팅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하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지역 캠퍼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은 현장에서 예비 크리에이터가 지역을 체험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크리에이터 교육 및 훈련은 지역별 설치된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지역 캠퍼스는 지역 환경과 자원을 파악하여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하는 기본소양교육과 함께 지역특화형 크리에이터 육성과정을 마련·운영하게 된다. 지역 캠퍼스는 지역주민과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킹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강사진과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예비)크리에이터가 지역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캠퍼스는 주민과 크리에이터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과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공간을 운영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관리·지원하는 것 또한 지역 캠퍼스의 역할이다.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보수교육, 컨설팅, 자문 등을 제공하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나. 운영주체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의 운영유형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주도형, 민간기관, 대학 등이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위탁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민관협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주도형의 경우,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이 신설되거나 관련 부서의 일부 업무로 편입되며, 해당 조직인력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장점으로 비영리 추구로 공공성이 확보되며, 행정조직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다. 또한, 지역 캠퍼스를 운영해야 하는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다. 반면, 조직인력이 공무

원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약하고,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부족은 공공주도형의 한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운영하거나, 중장기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전문가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 대학 등이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경우, 단기간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도와 위탁기관 간의 업무 성격이 명확하여, 도와 위탁기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형의 경우, 성과와 수요에 따라 재위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사업의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민관협력형은 기관 설립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행정조직의 비탄력적 운영·관리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민관협력형의 경우,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의 설립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목표에 부합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업무추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공공기관의 운영 참여는 전문가를 선발하고, 기관의 인사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으로서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스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4.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활동 영역

경제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측면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문제는 다양하다.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가치를 활용한 크리에이터의 발굴한 콘텐츠 사례를 통해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활동 영역의 다양성과 확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생활돌봄 - 춘천 '우리마을119'⁵⁴⁾

고령화가 심각한 강원도 춘천 사북면 별빛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공공 및 민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우리마을119'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마을 119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전등 교체하기, 시내 병원가기, 가스 차단기 설치하기, 손잡이 수리하기, 변기 수리, 외로움 등의 어려움을 언제든지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조직이다.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은 전화번호가 적힌 '우리마을119' 스티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노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력이 집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준다. 사소한 것은 무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부품값이 비싸면 실비를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업체를 연결해준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마을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 발굴사업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54) 춘천 별빛 사회적협동조합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17169&memberNo=48111654>

TV안나오고 불 나가면... '우리마을119'를 부르세요(한국농어민신문, 2019.12.30.)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878>



[그림 4-3]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마을119’

문화 - 군산 ‘아이엠군산’⁵⁵⁾

아이엠군산은 로컬자원을 활용해 콘텐츠를 개발하여, 미디어로 제작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제작사이다. 방치된 여관건물은 리모델링되어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크리에이터를 위한 커뮤니티와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방방굿곡 시즌2’ 프로젝트에서 아이엠군산은 ‘전라북도 군산 지역 내 영화시네마 스토어, 사진관, 70년 정통 중화요리집 이야기 등’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로 대상을 수상하였다.⁵⁶⁾

5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2021). 2021 로컬에 로컬을 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엠군산 영상제작과 미디어 군산 카페 슈퍼워커 오픈! (<https://blog.naver.com/littlevilla/222064330248>)

56)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방방굿곡 시즌2’ 대상에 아이엠군산(2021.5.11.) (<https://bcpf.or.kr/site/bbsnews/view?id=2250>)



[그림 4-4] 군산 아이엠군산

교육 - 익산 '사각사각'⁵⁷⁾

사각사각의 미션은 '사람과 나무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이다. 사각사각은 '남이 가지 않았던 눈밭을 사각사각 걸으며 길을 내겠다'는 정신과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돕겠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사각사각은 '생산, 교육,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무를 주요 자재로 가구 및 원목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아이 등이 목공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목공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리자선원 생활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무료 목공예교육을 진행하며, 저소득 계층 어린이와 가정에 책상과 침대를 기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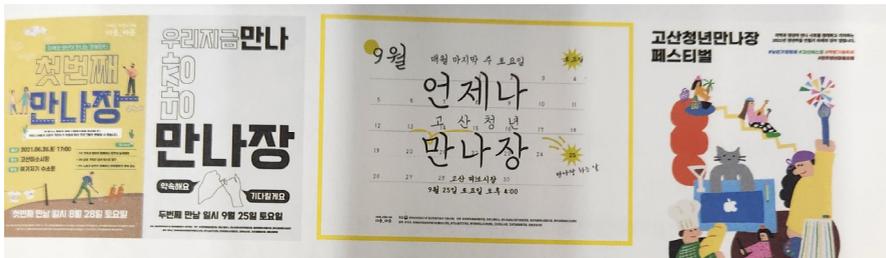


[그림 4-5] 익산 '사각사각'

57) 나무와 사람이 같이 성장하는 '사각사각'(익산열린신문, 2020.2.7.)
<http://www.iksanop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197>

커뮤니티 - 고산 '동거동락' 58)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은 고산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활동이 지역에 공유하고, 청년들도 지역 문화와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동거동락'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의 지역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물건, 이야기, 놀이를 통해 청년과 지역이 서로 알아간다. '동거동락'에서는 지역 상인, 어린이, 학부모, 예술인이 모두 모여 콘텐츠, 먹을거리, 놀거리를 나눌 수 있도록 참여놀이, 플리마켓, 버스킹, 야외영화상영 등을 진행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청년마을의 활동을 마무리를 축하하는 고산청년만나장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고산청년만나장의 주요 행사로는 청년 지역살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포럼,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함께 즐기는 시간, 청년 창업 콘텐츠 시연, 플리마켓 등이 포함된다.



[그림 4-6] 고산 '동거동락'

58)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2022). 어쩌다 완주 어쩌면 로컬. 완주청년마을 다음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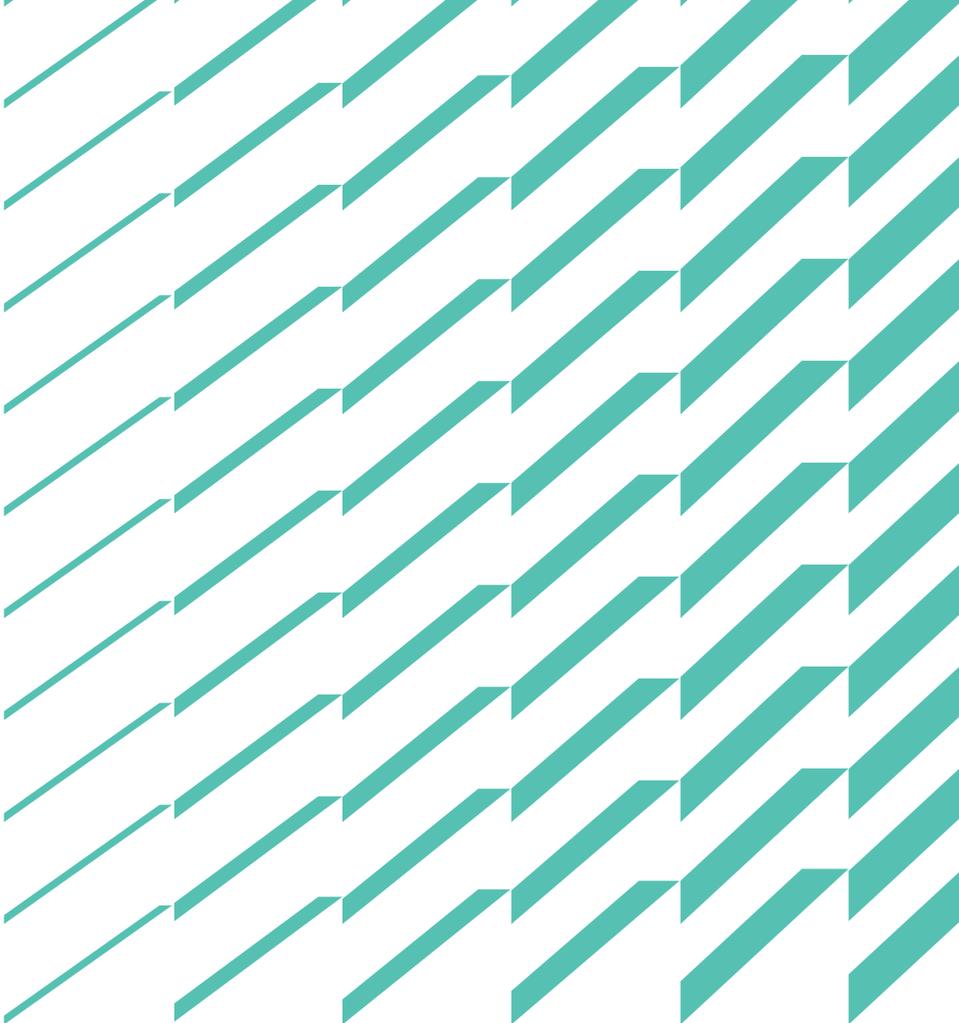
로컬푸드 - 전주 '구선손반'

'구선손반'은 로컬식재료를 통해 각각의 특화제품을 만드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로컬식 재료를 활용한 반찬, 밀키트, HMR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구선손반은 로컬식재료를 재배하는 생산자들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로컬식재료의 특화제품을 만들고 있다. 또한, 구선손반은 지역의 로컬식재료의 감성과 스토리가 담긴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GUSUNSON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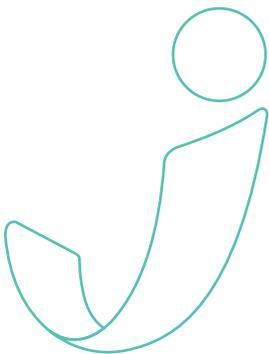
[그림 4-7] 전주 '구선손반'



제 5 장

결론

1. 연구요약
2. 기대효과와 정책제언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농산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산어촌은 주민의 삶의 질 감소, 사회자본 부족, 공동체 활력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정주여건 개선, 도시민 유치 등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생활여건 격차 증가와 농산어촌의 인구 유출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등 지역 내외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내적 발전력을 높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열악해지는 농산어촌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주체 육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지역활성화 주체로, 개인 또는 단체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농산어촌의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사람을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근거로, 전북 농산어촌 지역의 숨겨진 자원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인재인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농산어촌 활성화 주체를 육성하는 정책사업들은 개인 또는 그룹이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의 재발견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지역과 주민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으며,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산어촌이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들 사업은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활성화를 높이는 인적자원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나 농산어촌 활성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

로만 볼 수 없다. 농산어촌의 열악한 생활인프라, 문화복지, 경제, 의료, 교육 등을 고려해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농산어촌 활성화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로 육성한 농산어촌 활성화 주체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또한 필요하다.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주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구축 방향은 다음과 같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육성은 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환경,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산어촌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터 육성과 활동과정에서 크리에이터의 창의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터의 지역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현장과 관계에서 크리에이터 육성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육성된 크리에이터의 농산어촌을 변화시키는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농산어촌의 가치와 자원을 자신만의 콘텐츠로 개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성을 갖춘 농산어촌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예비 크리에이터가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지역과 주민과의 관계를 맺고, 지역을 체험하여, 사람과 현상을 지역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로의 성장을 위해 이들이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현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 활동가, 공무원,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지역성,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농산어촌 크리에이터가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들이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지원과 안전망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공동체의 수요와 역량에 따라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활동 결과가 결정된다. 크리에이터의 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자원 확보

와 함께, 공동체와 주민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크리에이티브가 공동체와 주민이 농산어촌 지역활성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기존사업들은 지역활성화 주체들이 지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훈련하거나 이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미흡하다. 따라서,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를 육성하고 활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인 ‘(가칭)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 스쿨’을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 스쿨은 크리에이티브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으로 역할을 한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 육성은 현장에서 (예비)크리에이티브가 지역을 체험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장인 지역 캠퍼스가 필요하다. 지역 캠퍼스는 (예비)크리에이티브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업할 수 있는 공유공간, 이들이 자신만의 콘텐츠와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작업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역 캠퍼스는 크리에이티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수교육, 컨설팅, 자문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기대효과와 정책제언

이 연구는 농산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농산어촌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를 통해 현재 전북 농산어촌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는 단기대응이 필요한 현안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시의적절하고 지역특화형 정책사업을 발굴하며,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킹은 지역진단과 대응방안 모색에서 전문가와 정책수혜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 정책사업과 발굴사업간 연계·협력 효과를 높일 것이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통한 숨겨진 지역의 자원과 가치의 재발견은 지역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을 재브랜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석된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활용하여 창조된 콘텐츠와 비즈니스모델의 실현화로 농산어촌 지역은 혁신과 기회의 장으로서 인식될 것이다. 이는 주목받지 못했던 농산어촌 지역과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새롭고 독특한 아이টে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네트워킹은 주민, 활동가, 귀농어·귀촌자 등 다양한 주체에게 지역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모델 발굴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이들이 농산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또는 창업 아이টে을 발굴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주체로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주민의 편의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적으로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고 현장에서 크리에이티브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별 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의 지역성, 전문성, 창의성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 육성을 위해, 기존 학교와 달리 지역이 교육의 장소가 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과 사람을 체험하고 관계맺기는 크리에이티브가 농산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만의 사고와 시각으로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교육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은 기존의 교육기관 설립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의 교육과 훈련과정 역시 유연성과 개방성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는 농산어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데 자신만의 시각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기관과 같이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크리에이티브가 지역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키우기 위해, 현장에서의 경험, 다양한 시도, 다양한 주체들과 교류와 협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는 공동체와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의 육성과정과 활동에 공동체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와 주민이 자신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와 주민에게 농산어촌 크리에이티브와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지역활성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 김용욱, 나현수 & 손경민. (2022).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정호, 조원지 & 정호중. (2022).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지원조직 활용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50>
-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년).
- 마쓰나가 게이코. (2015/2017). 로컬지향의 시대. 알에이치코리아.
- 모종린, 박민아 & 강예나. (2019). 로컬크리에이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우프레스.
- 모종린. (2021).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시공사.
- 미야조에 켄시. (2014/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학연문화사.
- 박민아. (2021). 로컬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찾다. 월간 국회도서관 2021년 9월.
- 산림청. (2018). 제2차 산촌진흥 기본계획(2018~2027년).
- 산림청. (2019). 산림관광자원 조사·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산림청.
- 서울시. (2020). 넥스트로컬: 2019.9-2020.4 넥스트로컬 1기의 마침표를 찍으며. 서울시.
-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2022). 어쩌다 완주 어쩌면 로컬. 완주청년마을 다음타운.
- 이원빈, 김계환, 이두희, 강지현 & 모종린. (2019). 창의인재기반사업 육성을 위한 지역생태계 구축 방안. 산업연구원.
- 이창영, 김진수, 김대진, 박다인, 김영준 & 정용주. (2020).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창업진흥원.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2021 로컬에 로컬을 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정보라. (2022). 로컬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정책. 희망이슈, 66, 희망제작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2020).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비즈니스를 발명하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2021 로컬 브랜딩 스쿨 ARCHIVE.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조원지, 황영모, 박로운 & 정호중. (2022).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개선방안.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57>

최유식 & 박성룡. (2021).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관점의 로컬플랫폼의 사례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6(1), 155-168.

하토리 시게키, 에조에 나오키, 히라마쓰 가쓰히모, 모기 아야코 & 야마구치 구니코. (2016/2017).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미세움.

해양수산부. (2020).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년).

황윤숙, 정원칠, 김진호, 홍선경, 김예은, 이변민, 정수희 & 윤나래. (2021). 지역 공공 여가·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SUMMARY

Establishing a Model for Cultivating Rural Creators to Revitalize Rural Areas in Jeollabuk-do

Wonjee Cho, Young-Mo Hwang, Jungho Na, Gyun-Gi Bae
Byeong Hun Lee, Hojung Jeong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s

Rural villages are facing numerous challenges, such as an aging population, population decline, inadequate infrastructure, and many others, which have resulted in a decreased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a shortage of social capital, and a decline in community vitality. Despite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on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and attract urban residents to rural areas, their effects remain limited.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utilizing human resources to drive regional revital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se human resources and aims to identif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use the values and resources of rural villages in innovative ways to create content and socioeconomic value as rural creators.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e steps for setting up a foundation that nurtures and supports the ongoing work of rural creators in revitalizing rural communities.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reviewed policy trends,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consulted with experts to develop a model for cultivating rural creators.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Rural creators play a crucial role in serving as local explorers who identify and understand regional issues, local excavators who uncover hidden assets and values, local innovators who generate new culture and content, and local educators who discover and cultivate new drivers of regional revitalization.

In order to foster and sustain their roles, it is necessary to 1) cultivate rural creator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2) create an environment that supports their creativity and expertise, 3) enhance the foundation for their stable and sustainable activities, and 4) establish a foundation to strengthen the openness and dynamism of the creator ecosystem.

A specialized organization that manages rural creator training and administration is needed, as is a local agency that manages their on-site training and activities. On-site education and training are crucial for enhancing the local identity, expertise, and creativity of rural creators. An open and flexible educational institution is required to educate and nurture rural creators, and the process of discovering new content and business models through a rural creator's unique perspective and vision should be a key aspect of the curriculum.

The activities of rural creators aim to provide services and businesses that meet the needs of a community and its residents, thereby improving their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n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where they can actively participate and collaborate in the development and activities of rural creators. This will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grow as partners with rural creators and become agents of regional revitalization.

Key Words

Rural creators, Regional Revitalization, Human resources, Local identity, Creativity, Expertise

기본연구 2023-01

전북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모델 개발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3년 1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40-2 955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취팔취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